발표자료집

바우처 → 이용권

송부 → 보냄

2019 국어 정책 학술 대회

국어 순화의 방향과 방법

2019. 12. 5. (목)

국립한글박물관 지하 1층 대강당

스크린 도어 → 안전문

주최 · 주관 | 국립국어원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소강춘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은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에 이번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뵙게 되어 더욱 의미 깊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9년 국어 정책 학술 대회를 '국어 순화의 방향과 방법'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 대회는 순화 정책의 방향성, 다듬은 말의 언론 사용 현황, 국어 순화어의 공공성 등 언어 순화의 방향과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언어 사회의 발전과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국어 순화의 정책적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태린 교수님 외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어 순화는 우리 국어를 순수하고 바른 언어로 가꾸는 일입니다. 국어 순화 관련 사업은 낯선 외국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바람직한 국어 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광복 후 일본어를 몰아내는 일에서 시작된 우리말 도로 찾기 사업이 있었고, 1976년에는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쓰는 데 대한 반성으로 문교부 안에 '국어순화운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어 순화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2003년 국어순화자료집 합본을 발간했고, 2004년부터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그동안 국어 순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 조금 더 세련되고 수용도가 높은 우리말을 찾고 또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새말모임'을 발족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긴 시간 동안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바른 말, 고운 말이 널리 사용되긴 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의 비속어 남용, 어려운 외국어나 한자어의 사용, 줄임 말 사용 등은 안타까운 우리말의 실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이 국어 순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국어 순화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해외 사례를 통해 자국어 순화 정책과 방향을 모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론, 공공 분야 언어를 통해 언어 순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국어 순화를 통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귀빈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우리 학술 대회를 찾아 주신 여러 청중들, 그리고 발표를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이번 국어 정책 학술 대회를 통해 국어 순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5.

국립국어원장 소 강 춘

축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김정배입니다.

2019년 국어 정책 학술 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 대회의 발표를 맡아주신 조태린, 김민채, 김일환, 정희창, 조진수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예부터 우리말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해에 국어 순화의 방법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어 순화를 위해 멀리는 1948년에 우리말 도로 찾기 소책자를 발간하였고,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말 다듬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새말모임'을 만들어 어려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어 순화와 확산 사업은 제2의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학술 대회가 우리의 국어 순화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어 순화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바르고 고운 우리말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학술 대회를 위해 멀리서 오신 발표자분들을 비롯한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소강춘 국립국어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겨울로 접어들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9. 12.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김정배

2019년 국어 정책 학술 대회

일정표

국어 순화의 방향과 방법

시 간			내 용	발표자
등 록	9:30~10:00	30’	• 참석자 등록	
개회식	10:00~10:30	30’	• 개회사	소강춘 국립국어원장
			• 축사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1부	10:30~11:10	40’	• **주제 1** - 언어순수주의와 국어 순화의 몇 가지 문제	조태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1:10~11:50	40’	• **주제 2** - 다듬은 말에서 새말까지	박주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점심식사	11:50~13:30	100’	• 점심 식사	
2부	13:30~14:10	40’	• **주제 3** - 자국어 순화 정책의 방향성 모색 : 프랑스와 퀘벡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채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4:10~14:50	40’	• **주제 4** - 다듬은 말의 언론 사용 현황 : 대규모 신문 말뭉치를 기반으로	김일환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휴식	14:50~15:10	20’	• 휴식	
3부	15:10~15:50	40’	• **주제 5** - 국어 순화어의 공공성	정희창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5:50~16:30	40’	• **주제 6** - 말 다듬기의 대상 : 공공분야 어려운 용어를 중심으로	조진수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최선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구본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6:30~17:00	30’	• 종합 토론	양명희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경우 서울신문 편집국 정한데로 가천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폐회	17:30~		• 폐회	

차 례

1부

“주제” *1*

언어순수주의와 국어 순화의 몇 가지 문제 *1*

조태린_연세대학교

“주제” *2*

다듬은 말에서 새말까지 *19*

박주화_국립국어원

2부

“주제” *3*

자국어 순화 정책의 방향성 모색: 프랑스와 퀘벡의 사례를 중심으로 *35*

김민채_연세대학교

“주제” *4*

다듬은 말의 언론 사용 현황: 대규모 신문 말뭉치를 기반으로 *59*

김일환_성신여자대학교

3부

“주제” *5*

국어 순화어의 공공성 *69*

정희창_성균관대학교

“주제” *6*

말 다듬기의 대상: 공공분야 어려운 용어를 중심으로 *85*

조진수_전남대학교 · 최선희_서울대학교 · 구본관_서울대학교

"주제" 1

바우처 → 이용권

송부 → 보냄

언어순수주의와 국어 순화의 몇 가지 문제

조태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스크린 도어 → 안전문

언어순수주의와 국어 순화의 몇 가지 문제*[1)]

조태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머리말

현대 한국의 언어 정책 및 계획의 여러 분야 중에 '국어 순화'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학문적 논의에 앞서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이 더 많은 분야이고, 국어 순화만큼 정책 수행자의 입장과 정책 대상자의 입장 사이의 괴리가 큰 분야도 흔치 않다. 물론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된 직후부터 한동안은 국어 순화가 일제 청산이라는 명분하에 범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호응과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국어 순화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경우는 국립국어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새로운 순화어가 절대 사용되지 않을 만큼 이상하다는 조롱과 비난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때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은 개별 순화어의 적절성이나 수용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국어 순화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국어 순화가 왜 필요한지, 즉 국어 순화의 목적과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국어 순화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활동 혹은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언어 순(수)화의 국지적 모습이며, 국어 순화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가 언어순수주의라는 점도 대부분의 언어 순(수)화에서 발견되는 공통의 특징이다. 이에 본고는 언어 순(수)화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언어순수주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국어 순화에서 나타나는 언어순수주의의 측면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국어 순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재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이 발표문은 『어문학』 제144집(2019. 06. 30.)에 "한국의 언어순수주의와 국어 순화"라는 제목으로 게재하고, 이를 다시 수정·보완하여 『언어순수주의의 발현과 전개』(한국문화사, 2019. 07. 15.)에 실었던 논문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기존 내용을 학술 대회의 취지에 맞게 가감하고 국어 순화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논의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2. 언어순수주의의 개념과 특성

2.1. 언어순수주의의 개념

국내외의 주요 사전들의 정의를 참조하면, '순수(純粹, purity)'의 뜻은 기본적으로 다른 무언가와 섞이지 않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으며, '순수주의'는 그러한 순수를 중시하는 신념 또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주의가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언어'임을, 다시 말해서 순수주의의 대표적 하위 유형이 '언어순수주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순수주의의 개념은 외래적인 언어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서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언어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왔다고 한다(Langer & Nesse, 2012: 608). 실제로 언어순수주의의 개념은 "외래 기원의 단어들(과 다른 언어 자질들)이 한 언어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오염이라는 신념"(Trak, 1999: 254)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사용 양상을 보면, 언어순수주의는 "한 언어를 외래적인 것으로 추정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요소들로부터 보호하거나 한 언어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열망의 표명"(Thomas, 1991: 12)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어순수주의'를 '한 언어의 기원적 순수성과 규범적 정확성을 강조하거나 고수하려는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언어 순주주의를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언어순수주의가 '특정한 사회적 집단 또는 세력의 당파적 이익을 증진하고 정당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생각, 신념, 가치이자 그것을 (재)생산하는 물질적 과정'(조태린, 2019: 257)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어순수주의는 그것을 중시하고 주장하는 특정 집단 또는 세력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 그리고 흔히 객관적 실체에 대한 왜곡과 위선을 통해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신념과 실천을 재생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2. 언어순수주의의 특성과 언어순수주의자의 자아상

언어순수주의의 특성은 역사적으로 언어순수주의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 왔는지를, 즉 언어순수주의자들의 자아상(self-image)을 파악할 때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George Thomas(1991: 20-23)에 따르면, 언어순수주의자들의 자아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일곱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1〉 언어순수주의자들의 자아상 유형과 역할 인식

자아상 유형	역할 인식
제분업자 (miller)	제분업자가 밀의 겉껍질을 벗겨 내고 빵을 만들 수 있는 순수한 밀가루를 만들어 내듯이 언어순수주의자는 한 언어에서 유용하고 좋은 것과 유용하지 않고 나쁜 것을 분리함 (16세기 이탈리아의 피렌체 아카데미에서 주로 발견)
원예사 (gardener)	원예사가 불필요한 가지를 치고 무성한 잡초를 뽑아내어 나무와 화초를 가꾸듯이 언어순수주의자는 한 언어에서 제거해야 할 것과 장려해야 할 것을 구별하여 그 언어가 더 잘 발전하도록 함 (17세기 독일의 언어 학회들에서 주로 발견)
야금술자 (metallurgist)	야금술자가 광석에서 불순물의 정제를 통해 특정한 금속을 추출하듯이 언어순수주의자는 한 언어에서 순수하지 못한 것을 가려내고 그 언어 본연의 상태를 찾아냄
칼갈이 (grinder)	칼갈이가 무뎌진 칼을 숫돌 위에 놓고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듯이 언어순수주의자는 한 언어의 부족함 부분을 채우고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킴 (체코에서 17세기 언어순수주의의 모습을 대표하며, 19세기 언어순수주의에서 재현)
의사 (physician)	의사가 더 이상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의 병든 부분을 잘라 내어 건강한 부분의 안녕을 보장하듯이 언어순수주의자는 한 언어의 변질되거나 타락한 요소를 제거하고 순수하고 건강한 부분을 장려함
계보학자 (genealogist) 또는 유전학자 (geneticist)	계보학자와 유전학자가 특정 생물의 족보와 혈통을 중시하듯이 언어순수주의자는 한 언어에서 어원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외래적 요소를 색출하고 제거함
사제 (priest)	사제가 신의 규율과 명령을 어긴 사람을 대상으로 종교적 정화의 의례를 수행하듯이 언어순수주의자는 신에 의해 창조된 순정한 언어를 더럽히는 오염 요소를 경건하게 바로잡음

언어순수주의자의 자아상은 그 특성에 따라 위와 같이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의 현실에서는 각각의 자아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둘 이상의 자아상이 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상을 통해 파악되는 언어순수주의자의 공통적 역할은 해당 언어에서 순수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제거하고 순수하고 바람직한 요소를 장려하는 것이다. 언어순수주의자의 이러한 공통적 역할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발견되며, 이는 곧 언어순수주의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첫째, 특정 언어에서 순수하고 순수하지 않은 요소,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이로 인해 기원적 순수성과 규범적 정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언제나 언어순수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둘째, 기원적 순수성과 규범적 정확성의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됨에도 순화의 대상을 선정하고 순화의 추진을 결정하는 주체는 언제나 특정한 전문가, 즉 엘리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와 경제, 교양 등 모두를 독점한 엘리트 집단이 언어 순화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평가될 정도다(유재원 200

5: 12). 이로 인해 언어순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적인 언어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순수주의자들의 자아상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이해는 언어순수주의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임에도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2.3. 언어순수주의와 언어 순(수)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순수주의와 언어 계획 또는 운동으로서의 언어 순(수)화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김선철(2009: 3)에서는 영어의 'language purification'과 'language purism'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언어 순수화'로 번역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전자를 '언어 순(수)화'로, 후자를 '언어순수주의'로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언어순수주의'가 언어를 바라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면, '언어 순(수)화'는 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언어와 언어 사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활동(purist activity)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김선철(2009)이 Langer & Davis(2005)에서 재인용한 '언어 순(수)화의 여러 가지 정의'는 그 원어(linguistic purism)와 기술 내용을 고려하면 '언어순수주의의 여러 가지 정의'로 수정되어야 한다.

언어순수주의 이데올로기는 언어 순(수)화 계획 또는 운동이라는 물리적 활동을 통해 언어 사용의 현실에서 구현된다. 이는 개인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사회적 층위의 현상이며, 그 결과로 정치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언어 순(수)화 운동은 언어적인 사회 계급 집단을 설정하고 그에 속하는 구성원을 확인하는 효과를 냄과 동시에 그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집단의 바깥에 위치 짓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 순(수)화 운동은 '동일시'와 '구별 짓기' 양자 모두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매우 정치적이다(Shapiro, 1989: 22).

언어 순(수)화의 정치성은 2.2절에서 살펴본 언어순수주의의 두 가지 특성, 즉 판단 기준의 자의성과 엘리트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언어 순(수)화의 실제적인 추진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먼저 판단 기준의 자의성은 무엇을 순화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며, 이에 대한 입장에 따라 언어 순(수)화의 목적 또는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어 순화에서는 순화 대상으로서의 외래어에 한자어를 포함하는가, 그리고 포함한다면 얼마나 포함하는가의 문제에서 중요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엘리트주의적 성격은 언어 순(수)화가 누구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추진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며, 이에 대한 입장에 따라 언어 순(수)화의 추진 주체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3. 국어 순화의 개념과 언어순수주의

3.1. 국어 순화의 개념

한국에서의 '국어 순화'는 한자어로는 '國語 純化' 또는 '國語 醇化'로 쓰이는데, 민현식(2003: 36, 각주 5)은 각각을 영어의 'purification'과 'refinement'와 대응시키면서, 전자를 이상(理想) 개념으로, 후자를 방법(方法) 개념으로 구별한다. 반면에 김선철(2009: 9)은 국어 순화를 적는 두 한자어 모두 '순수화'를 뜻하는 것이므로 '국어 순화'는 외래적인 요소의 축출로만 그 개념을 한정하고, 그 이상의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을 위해서는 '우리말 다듬기' 또는 '국어 정화(國語 淨化)'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국어 순화'라는 용어의 실제적 용법은 학술적 개념 구분을 위한 위와 같은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 김민수(1988)을 비롯한 많은 논의와 연구들에서 '國語 醇化'가 'purification' 또는 'purism'으로 번역되곤 한다. 또한 국어 순화의 개념을 정의한 초기의 주요 연구들에서 그 개념을 외래적 요소의 축출로만 한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김선철, 2009: 5; 민현식, 2003: 36). 예들 들어, 국어 순화는 '국어에서 외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고유어로 대신하게 하는 일'(고광모 외, 1988: 62)이자 '국어를 순수하고 바르고 곱게 사용하는 일'(남영신, 2000: 84)이며, '우리말이 아닌 말들이 우리말에 섞이어 우리말을 잡스럽게 한(또는 하고 있는) 말들을, 일반 대중이 정보 교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손을 대어 쉽고 올바른 우리말 되게 다듬질하는 일'(김석득, 2013: 1)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또한 국어 순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을 가려 쓰는 운동"으로 정의되면서, 어려운 한자말, 일본말 찌꺼기, 서양말 등의 외래적인 요소는 그것의 외래성 때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의 '쉬운 말'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국어 순화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허웅, 1977: 143) 심지어 국어 순화(國語醇化)는 국어의 순화(純化)와 미화(美化)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면서, "이것이 곧 한글 전용을 의미하거나 외래어나 한자어를 무조건 배제 축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되기도 한다(박갑수, 1976: 67). 이처럼 다양한 쓰임을 반영해서인지 <표준>에서도 국어 순화는 "국어를 다듬는 일. 외래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비속한 말을 고운 말로, 틀린 말을 표준어로 또는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쓰는 것 따위이다."라고 풀이되고 있다.

국어 순화의 개념이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혼란스러움을 지적하면서 국어 순화를 외래어 대한 문제의식에 중심을 두고 '언어 순결화' 또는 '언어 정화'라는 개념으로 한정하려는 시도도 있지만(김선철, 2009), 국어 순화의 새로운 방향을 '언어 발전'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언어 순결화’ 또는 ‘언어 정화’의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사회적 의사소통의 효율화와 용이화로 확장하기도 한다(김하수, 2005; 2011).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어 순화는 국어에서 외래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렵고 거친 요소를 제거하고, 고유하고 바람직하며 쉽고 고운 요소를 살려 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국어 순화는 앞서 살펴본 ‘언어 순(수)화’의 일종이 된다.

3.2. 국어 순화와 언어순수주의의 개념 비교

국어 순화가 언어 순(수)화의 한국적 발현이라면, 국어 순화에서도 언어 순(수)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순수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국어 순화의 개념 범위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언어순수주의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하게 된다. 언어순수주의의 개념이 외래적인 언어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온 것처럼, 국어 순화의 개념도 유사한 확장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어 순화의 개념은 언어순수주의의 개념과 유사성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김선철(2009: 5)은 “일반적인 언어 순수화 개념과 달리, 우리의 국어 순화에는 나름대로의 독자적 특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도 그 특질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특질은 기존 연구에서의 국어 순화의 개념 범위와 언어순수주의의 일반적 개념 범위를 비교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표 2〉 국어 순화의 개념 범위와 언어순수주의의 일반적 개념 범위 비교

<table>
<tr><th colspan="2">국어 순화의 개념 범위</th><th rowspan="2">언어순수주의의
일반적 개념 범위</th></tr>
<tr><th>김선철(2009: 6)</th><th>민현식(2003: 37)</th></tr>
<tr><td>외래 요소 제거</td><td rowspan="2">우리말 쓰기, 즉 국어화(國語化) 또는
모어화(母語化)</td><td rowspan="2">기원적 순수성</td></tr>
<tr><td>전통 표현 쓰기</td></tr>
<tr><td>비속어 제거</td><td rowspan="2">바른 말 쓰기, 즉 규범화(規範化)</td><td rowspan="2">규범적 정확성</td></tr>
<tr><td>표준어 쓰기</td></tr>
<tr><td>쉬운 말 쓰기</td><td>쉬운 말 쓰기, 즉 용이화(容易化)</td><td>-</td></tr>
<tr><td>고운 말 쓰기</td><td rowspan="2">고운 말 쓰기, 즉 우미화(優美化)</td><td rowspan="2">-</td></tr>
<tr><td>청각 인상적 순화</td></tr>
</table>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외래 요소를 제거하고 전통적인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국어화’ 또는 ‘모어화’와 비속어를 제거하고 표준어 등의 바른 말을 사용하자는 ‘규범화’는

국어 순화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각각 '기원적 순수성'과 '규범적 정확성'이라는 언어순수주의의 개념 범위와도 잘 대응한다. 그러나 국어 순화의 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두 가지, 즉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자는 '용이화'의 개념과 아름답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는 '우미화'는 2장에서 살펴본 언어순수주의의 개념 범위 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규범적 정확성의 개념 범위를 규범적인 말만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어렵거나 아름답지 않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까지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순수주의에 대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나 논의들에서는 용이화와 우미화의 측면이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국어 순화의 개념 범위가 언어순수주의의 일반적 개념 범위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한국의 언어순수주의는 일반적인 언어순수주의보다 더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어 순화의 개념 범위에서 두드러지는 용이화와 우미화 중에서 본고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용이화'이다. 용이화는 언어순수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엘리트주의적 성격과 대립하거나 그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미화는 국어화 또는 모어화나 규범화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주도하는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용이화는 일반 언중의 편의와 필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른 성격을 보인다. 용이화의 이러한 특성은 20세기에 들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른바 '쉬운 영어(plain english)' 운동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쉬운 영어 운동은 행정, 법률 등의 공공 영역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public language)가 지나치게 어려워서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쉬운 영어 운동은 1971년 영국의 제일 가난한 지역에 살고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크리시 메이어라는 평범한 시민 활동가의 문제 제기와 노력에서 촉발되었다(피터 로드니, 2013: 20). 여기에서는 언어순수주의 또는 언어 순(수)화와 관련된 동기나 배경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국어 순화의 개념 범위 내에 일찍부터 '쉬운 말 쓰기', 즉 용이화의 측면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때의 용이화는 '우리말 쓰기', 즉 국어화 또는 모어화와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외래 요소가 제거된 고유의 전통 표현이 가장 쉽다"라는 인식을 양산해 왔다.

4. 국어 순화의 실행과 언어순수주의

4.1. 국어 순화의 대상 및 주체와 언어순수주의의 다층화, 민중화

국어 순화의 일차적 대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래적인 요소이며, 이는 언어순수주의의 일차적 개념인 기원적 순수성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의 국어 순화에서는 배제의 대상이 되는 외래적인 요소 내에서도 그 성격과 대응 방식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한자어와 기타 외래어가 바로 그것인데, 이는 언어순수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순수' 또는 '순결'의 기준이 다층화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존 논의들 중에는 한자어는 외래적인 것이지만 그것의 역사성과 현재 국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의미나 어감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외래어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김민수, 1988: 6; 고광모 외, 1988: 71-72). 이러한 입장에서 한자어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순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만 순화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순화 대상으로서의 한자어를 다른 외래어와 구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자어가 외래어로서 국어에 들어온 시기가 빨랐을 뿐이지 외래어라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자어도 고유어로 바꾸는 순화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한자어 순화를 위한 교육과 의식적 노력을 강조한다(고광모 외 1988: 70, 72, 74).

이처럼 한자어는 외래어의 한 유형임에도 국어 순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지가 논란이 되는 반면에, 다른 유형의 외래어들은 그 기원에 따라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서의 인식 또는 태도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대 일본어 표현과 일본 한자어는 사용하는 이의 무지를 질타하거나 고루함을 비판하는 예시로 사용되곤 하지만, 서구 외래어는 현학적인 또는 과시적인 표현 태도를 비판하는 예시로 자주 사용"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의사소통의 불편함보다는 감정적 불편함의 정도에서 나타나며, 이런 점은 국어 순화에 임하는 태도를 결정짓기도 한다. 즉 서구 외래어에 비해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에서 온 외래어에 과도한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다(최경봉, 2007: 370).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서 외래적인 요소와 함께 늘 부각되어 온 또 다른 하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인데, 이는 언어순수주의의 개념 범위를 구성하는 '규범적 정확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측면이므로 새롭거나 다를 것이 없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국어 순화의 핵심 대상에는 성문화된 어문 규범에서 벗어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표기와 발화가 포함된다.

반면에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서의 '어려운 요소'는 국어 순화의 개념 범위를 언어순수주의의 일반적 개념 범위보다 확장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어려운 말을 쉽게 바꾸어 말하는 것은

국어 순화의 목적 및 결과의 측면에서 소수의 지식인 엘리트보다 대다수 일반 언중의 이해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이화의 측면은 국어 순화의 주체도 엘리트만이 아니라 일반 언중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어 순화의 핵심 대상이 외래어가 아니라 어려운 말이 되어야 하고 국어 순화의 목적이 언어적 소수자들이나 일반 국민의 공공성 접근과 문화적 민주주의 실현에 있음을 강조한다(고길섶, 2004: 44). 국어 순화는 언어 사용자들의 공공성 접근과 문화적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어 순화의 성공 여부도 결국 국어를 사용하는 대중의 요구와 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국어 순화의 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 주체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서의 언어순수주의를 민중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서의 어려운 말의 순화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한 연구와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어려운 말을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 언급하더라도 그때의 어려운 말은 '어려운 한자어'에 한정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순화 대상어의 선정 기준을 살펴본 이정복(2003: 189-192)에서도 한자어가 아닌 외래어가 순화 대상어가 되는 이유는 어려운 말이어서가 아니라 민족적 정서나 국어의 기준이나 감각에 맞지 않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쩌면 어려운 말이 근본적으로 국어 순화의 대상이 아니며, 쉬운 말을 사용하는 문제는 국어 순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게 한다.

4.2. 국어 순화의 목적 및 필요성과 언어순수주의의 정치화, 탈정치화

그간의 국어 순화 운동에서 제시해 온 국어 순화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국어 순화가 단지 언어 내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언어 외적인, 특히 정치적인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 순화의 이러한 정치적 성격은 언어순수주의가 어떻게 정치화 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국어 순화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자말을 비롯한 외래어의 어휘를 토박이말로 바꾸는 것에서 토박이말의 유기적인 활성을 되찾아 살리는 것으로 목표가 확장되거나 중심이 바뀌어" 발전해 왔으며, 언어 내적인 측면에서 국어 순화의 최종 목적은 "외래어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토박이말 자체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수, 2013: 22).

국어 순화의 이러한 언어 내적 목적은 "국어는 우리의 언어니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의 당위"에 기반하기도 하지만(고광모 외, 1988: 62-63), 언어적 순혈주의나 우월주의의 태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 외적으로는 정치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와 결합

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순수주의는 언어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그치지 않고 언어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주요한 '통로'이자 '수단'이 될 수 있다(언어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언어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구별에 대해서는 조태린(2019) 참조).

국어 순화 운동의 필요성을 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나 국어 개량과 언어 습관의 개선만이 아니라 민족정신과 주체성의 확립,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사회 및 국민 생활의 정화에서 도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박성의, 1977: 9-13). "국어를 순화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최용기, 2003: 4)라거나 국어 순화 노력이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 민족정신을 함양하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기도"(고광모 외, 1988: 63) 하다는 주장은 국어 순화가 언어 내적 목적이 아닌 언어 외적 목적, 즉 정치적 목적과 결합하는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국어 순화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국어 순화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행위임을,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서의 언어순수주의가 본격적으로 정치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의 순결은 하나의 이념이자 선동의 구호였고, 실제로는 누구를 새 시대에 참여시키고 누구를 배제할 것이냐 하는 정치 투쟁의 무대였다"(김하수, 2011: 124-125). 국어 순화의 이러한 정치적 성격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피폐해진 국어의 회복 또는 재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국어 순화라는 비정치적 정치를 통해 국민들을 순화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효과를 생산"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길섶, 2003: 39).

국어 순화가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보려 하지 않고, 순수한 언어적 현실만을 보려고 고집하면서, 그리하여 부당하게도 그 언어적 현실마저도 왜곡해 온 국어 순화론자들은 '올바른 언어생활'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대중을 순응하는 국민으로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해" 왔으며, "자신들의 입장은 순수하다고 주장할는지 모르나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지배 질서를 구축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해"(고길섶, 2003: 41)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970년대 중반의 국어 순화 운동은 유신 정권의 문화 운동이라 정권의 반독재 투쟁을 분산시키려는 문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갑자기 이러한 국어 순화 운동이 생겨난 배경에 의문"이 생기는데, "유신 말기에 그런 정략적 차원에서 '국어 순화 의식 => 민족주의, 국수주의 고취 =>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이라는 의도로 추진될 수 있었을 것이다"(민현식, 2003: 50).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국어 순화론자 가운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조치를 높이 평가하려는 태도는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들은 국어 순화가 사회의 민주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몰역사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김하수, 2005: 24).

물론 언어순수주의의 정치적 성격이 한국에의 국어 순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의 언어 순(수)화 운동은 전통적으로 낭만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낭만주의는 이후 국수주의 파시즘과 결합되면서 유례없는 폭압 체제하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 결국 언어 순(수)화 운동은 "자신들의 역사적 조건에 대해 각성한 시민운동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될 때는 본의든 아니든 전진이 아닌 퇴행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김하수, 2005: 24).

국어 순화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국어 순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하고, 국어 순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목적과 필요성을 재설정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중 후자의 노력은 한국에서의 국어 순화에서 정치화 되었던 언어순수주의를 탈정치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 순화의 언어순수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두 가지 특성, 즉 순수성과 정확성 중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처럼 "국어를 바르게 쓰는 운동이 국어 순화 운동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어 순화 운동은 이것으로 끝내고 새롭게 '국어 바르게 쓰기' 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남영신, 2000: 94). 또한 국어 순화의 목적을 철저하게 원활한 의사소통에 둠으로써 순화 대상의 선정 기준에서 외래어 여부를 고려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한재영, 2003: 20).

위의 주장들이 언어 순혈주의와 외래적 요소의 배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국어 순화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한하고 있다면, 국어 순화의 목적과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는 논의들도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국어 순화를 '언어 발전'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순화 작업은 순수 토착어냐의 여부보다는 우리의 사회와 역사가 발전하는 데에 언어가 어떤 구실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것의 형태와 의미는 "시대적 조건에 맞게 변화해야 하며, 또한 한국어화(Koreanization)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김하수, 2005: 33). 또 다른 하나는 국어 순화를 '국어 풍요'라는 목표하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국어 순화 운동이 "배제의 원리를 버리고 포용의 원리를 채택"하고 "우리 것의 순수성에 매이지 말고 더 과감하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입장에서는 "국어의 국어의 표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일본어건 중국어건 아랍어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심지어 "이모티콘까지도 현재의 언어 규범에 복종하면서 국어 표현력을 확장하는 것이라면 용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이남호, 2005: 100-101).

이러한 주장들은 '국어 순화'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회의를 갖게 할 정도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국어 순화의 정치적 성격을 탈각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어순수주의에서 기원적 순수성의 측면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정치적 성격을 벗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규범적 정확성의 측면도 그 기준을 세우고 강제하는 주체의 정치적 의도와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규범적 정확성을 발전이나 풍요로 대체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어 발전의 방향이나 풍요의 기준도 그것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특정 주체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5. 맺음말을 대신하여: 국어 순화의 몇 가지 문제

본고는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국어 순화의 문제를 언어순수주의 이데올로기와의 비교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국어 순화는 '기원적 순수성'과 '규범적 정확성'이라는 개념 범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언어순수주의의 일반적 개념과 공통점을 보이지만, 언어순수주의의 일반적 개념 범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용이화'와 '우미화'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용이화'는 언어순수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엘리트주의적 성격과 대립하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특성으로 인해 국어 순화의 다른 개념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용이화'의 이질성은 그 실행의 과정에서 언어순수주의의 대상을 다층화하거나 주체를 민중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간 한국의 국어 순화 운동에서 제시해 온 국어 순화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국어 순화가 순수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서의 언어순수주의도 정치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 순화의 이러한 정치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국어 순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국어 순화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확성이나 국어 발전 또는 풍요의 문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려는 언어순수주의의 탈정치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국어 순화와 언어순수주의를 근본적으로 탈정치화하는 것일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국어 순화는 그 필요성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지 않는다면, 먼저 그것의 정치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정치성은 정치적 지배 세력이나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 언중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반 언중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치성은 국어 순화가 지배와 선동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고 소통과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언중들이 언어순수주의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국어 순화의 대상과 주체,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그러한 관심과 논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어 순화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는 국어 순화의 목적과 대상의 문제로 언어순수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앞서 국어 순화가 언어순수주의, 특히 기원적 순수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국어 순화 대상의 다층화와 국어 순화 목적의 정치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어 순화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언어순수주의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물론 국립국어원의 국어 순화 정책과 사업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언어순수주의 또는 기원적 순수성보다 대중적 소통성과 이해의 용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국립국어원의 국어 순화 작업을 언어순수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행 국어 순화의 주요 대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이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 듯하다. 국민의 일상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어 이해와 소통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음에도 그것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서 온 외래적 요소라는 이유에서 순화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래적 요소라 해도 그 기원에 따라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서의 인식 또는 태도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한자어는 어려울 때만 문제시할 뿐이지 외래적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일반적이지만, 유독 일본식 한자어는 대중적으로 소통되고 이해하기 쉬워도 순화의 가장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최근에도 국립국어원은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를 발표하면서 일본어 또는 일본어 음차어는 물론이고 소위 일본식 한자어 목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목록에 포함된 '가불, 가처분, 거래선, 종지부, 고참, 다반사, 수취인, 잔고' 등의 단어들은 사실 이해와 소통에 장애가 되어서 순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어 순화와 언어순수주의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어 순화에서 언어순수주의는 여전히 유의미한 측면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국어 순화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국어 순화에서 언어순수주의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면, 그것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국어 순화에서 언어순수주의를 완전히 배제한다면 국어 순화의 목적과 대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국어 순화라는 명칭 또는 용어의 문제로 국어 순화라는 이름하에 누적되어 온 부정적 경험 또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방안과 관련된다. 언어순수주의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국어 순화의 목적과 대상이 재설정되고 새로운 모습의 언어 정책 및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어 순화라는 이름에 새겨진 부정적 기억은 여전히 완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성경 문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전과 달라진 언어 정책 및 계획을 국어 순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환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 순화라는 표현에 결부된 부정적 경험 또는 인식은 무엇인가? 그러한 부정적 경험과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어 순화라는 표현의 사용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가? 국어 순화라는 표현을 폐기한다면 새로운 언어 정책 및 계획에 걸맞은 표현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다듬기’나 ‘Plain English movement’에서 온 ‘쉬운 말 쓰기’ 등은 국어 순화를 대체하는 용어로 적절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어 순화의 주체의 문제로 현재 국어 순화 정책 및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역할과 관련된다. 한국에서의 국어 순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금처럼 국립국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직접적인 정책 및 계획으로 추진하든, 과거처럼 추진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간접적인 정책 및 계획으로 추진하든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집행이 결정적인 원동력이었다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국어 순화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과 그로 인해 국어 순화를 추진하는 국립국어원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국어 순화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국어 순화 정책 및 계획을 총괄하는 국립국어원의 현재 역할은 적절한가? 국어 순화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민간 차원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필요한가? 국어 순화를 위한 민간 차원의 주체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참고 문헌

고광모 외(1988), 「좌담 - 국어 순화의 바른 길」, 『국어생활』 14, 국립국어연구원, 59~79.

고길섶(2000), 「국어 순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국어 순화 정책의 역사적, 문화적 비판.」, 『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235~244.

김민수(1988),「국어 순화의 현실과 전망」,『국어생활』, 14, 국립국어연구원, 4~13.

김석득(2013),「우리말 순화의 원리 - 우리말의 세계화를 내다보면서」,『제1회 국어 순화정책 학술대회 자료집』, 사단법인 국어순화추진회, 1~14.

김선철(2009),「국어 순화의 개념과 방향 설정에 대하여」,『사회언어학』17(2), 한국사회언어학회, 1~23.

김정수(2013),「한국말 가다듬기 - 국어 순화의 목표와 방법」,『제1회 국어순화정책 학술대회 자료집』, 사단법인 국어순화추진회, 15~23.

김하수(2005),「국어 순화의 문제점과 극복의 길」,『새국어생활』15(1), 국립국어원, 19~35.

김하수(2011),「국어 순화의 비판적 대안」,『새국어생활』21(1), 국립국어원, 123~136.

남기심(2003),「국어 순화와 관련하여」,『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9~11.

남영신(2000),「국어 순화 정책 방향 모색」,『국어 정책에 관한 학술회의 "21세기의 국어 정책"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83~96.

민현식(2003),「국어정책 60년의 평가와 반성」,『선청어문』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37~74.

민현식(2003),「국어 순화의 국어학적 연구」,『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33~212.

박갑수(1976),「국어순화운동의 현황과 전망」,『국어교육』2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61~69.

박성의(1977),「국어순화운동의 이념」,『민족문화연구』1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23.

유재원(2005),「국어 순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새국어생활』15(1), 국립국어원, 7~17.

이남호(2005),「국어 순화는 국어 풍요가 되어야 한다」,『새국어생활』15(1), 89~101.

이정복(2003),「사회언어학에서 본 국어 순화의 문제점」,『사회언어학』11(2), 한국사회언어학회, 187~214.

조태린(2019),「언어와 이데올로기 연구의 쟁점과 접근 방식」,『사회언어학』27(3), 한국사회언어학회, 253~278.

최경봉(2007),「외래어 사용의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그 수용 방안」,『어문연구』3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65-387.

허웅(1977),「국어 순화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민족문화연구』1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25~153.

최용기(2003),「국어 순화 정책의 역사와 개관」,『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3~30.

한재영(2003),「국어 순화, 왜 필요한가? - 다시 생각해 보는 국어 순화」,『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15~27.

피터 로드니(2013),「쉬운 영어 캠페인의 경험」,『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 피어나, 17-56.

Jernudd, B.H. and Shapiro, M.J.(eds)(1989), *The politics of language purism*,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Langer, N. and Davies, W.V.(2005),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purism, In N. Langer and W.V. Davies(eds.), *Linguistic purism in the Germanic languages*, Berlin: Walter de Gruyter. 1~17.

Langer, N. and Nesse, A.(2012), Linguistic purism, In J.M. Hernández-Campoy and J.C. Conde-Silvestre(eds.), *The Handbook of historical sociolinguistics*, Oxford: Wiley-Blackwell, 607~625.

Shapiro, M.J.(1989), A political approach to language purism, In B.H. Jernudd and M.J. Shapiro(eds), *The politics of language purism*,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21~29.

Trask, R.L.(1999), *Key concepts in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Thomas, G.(1991), *Linguistic purism*, London & New York: Longman.

"주제" 2

바우처 → 이용권

송부 → 보냄

다듬은 말에서 새말까지

박주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스크린 도어 → 안전문

다듬은 말에서 새말까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박주화

다듬은 말에서 새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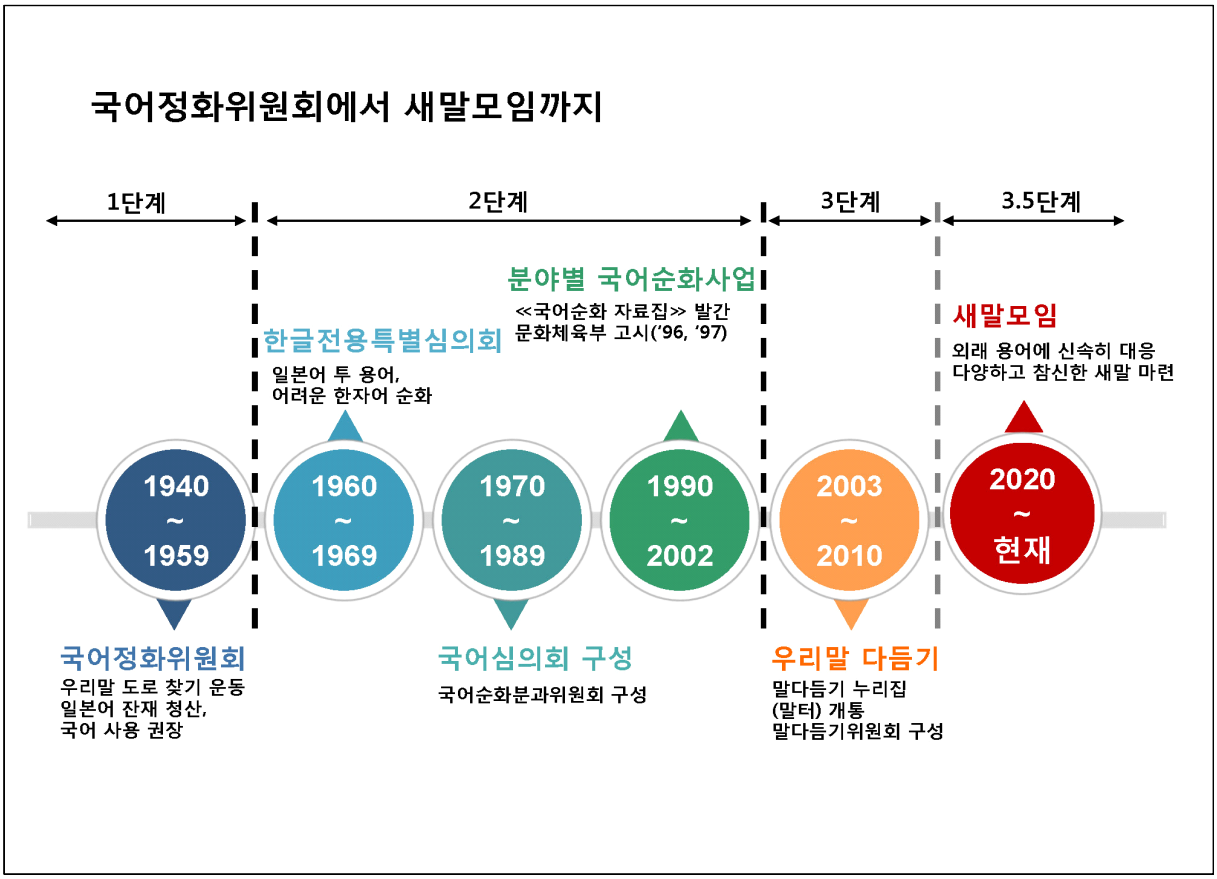
1 우리말 도로 찾기 1940~1950

2 한글 전용의 확대 1960~1990

3 우리말 다듬기 2000~2010

4 새말 고르기 2020~

국어정화위원회에서 새말모임까지



1. 우리말 도로 찾기

국어정화위원회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
일본어 잔재 청산, 국어 사용 권장
일본어 투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순화

2. 한글 전용의 확대

한글전용특별심의회
국어심의회
-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분야별 용어 순화안 심의, 고시
국어 순화 자료 발간

3. 우리말 다듬기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개통
- 모두가 함께하는 말 다듬기

어려운 외국어, 한자어 다듬기

언론, 공공기관, 교육 등 활용

4. 새말

새말모임

새롭게 유입되는 말에 신속한 대응

세대, 성별, 분야의 다양성 확보

일본어 투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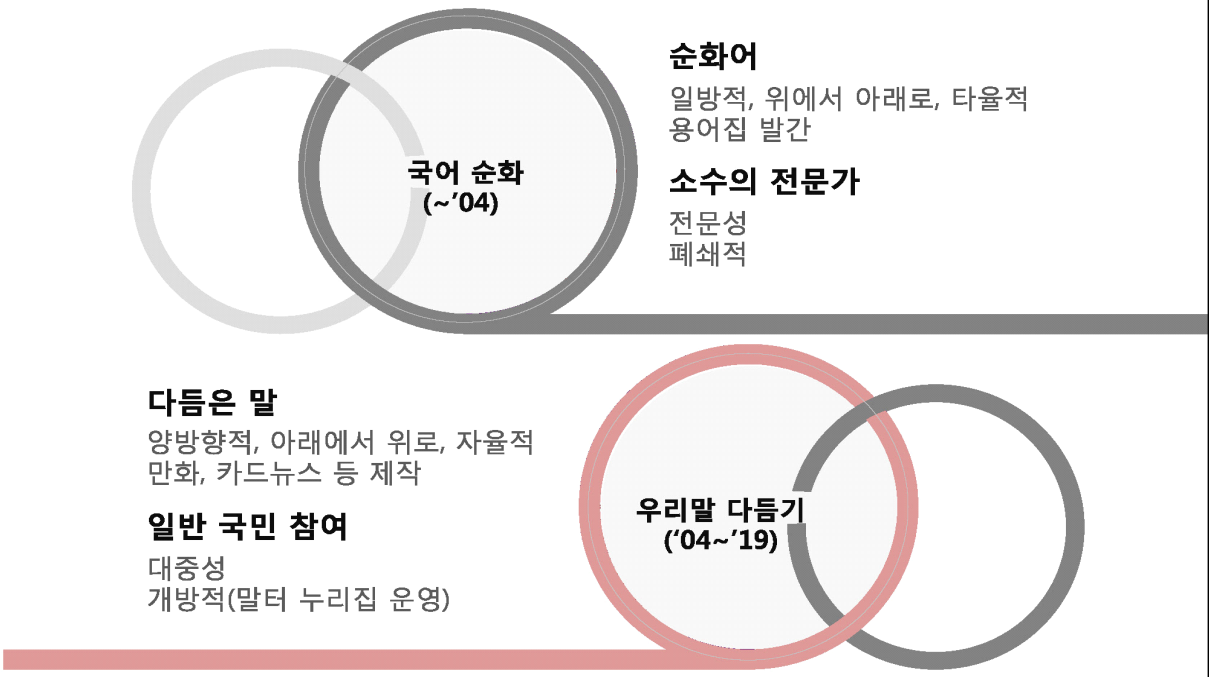
국어정화위원회에서 새말모임까지

<주요 내용>

우리말 도로 찾기	한글 전용의 확대	우리말 다듬기	새말 고르기
1940~1950	1960~1990	2000~2010	2020~
일본어 잔재 청산	한글 전용 적극 추진	대국민 참여 유도	신속한 포착 및 대응
우리말 정체성 회복	국어 순화 정책 본격화	용이성, 소통성 강화	다양성, 참신성에 중점
국어 정화, 국어 사용	분야별 체계적 순화	공공성에 기반한 다듬기	유연하고 개방적인 새말
국어정화위원회	한글전용특별심의회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	새말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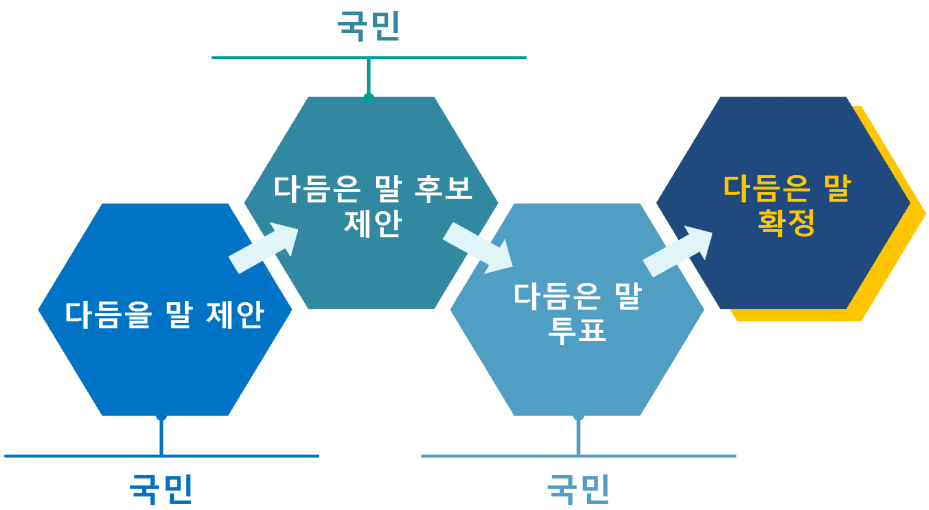
한글 전용에서 우리말 다듬기로

한글 전용에서 우리말 다듬기로



우리말 다듬기 1. 대중성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누리집



우리말 다듬기 1. 대중성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누리집

다듬을 말	다듬은 말
스마트폰	똑똑전화
이모티콘	그림말
다크서클	눈그늘
웰빙	참살이
스타일리스트	맵시가꿈이
킬힐	까치발 구두
골드미스	황금 독신 여성

우리말 다듬기 2. 소통성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누리집

■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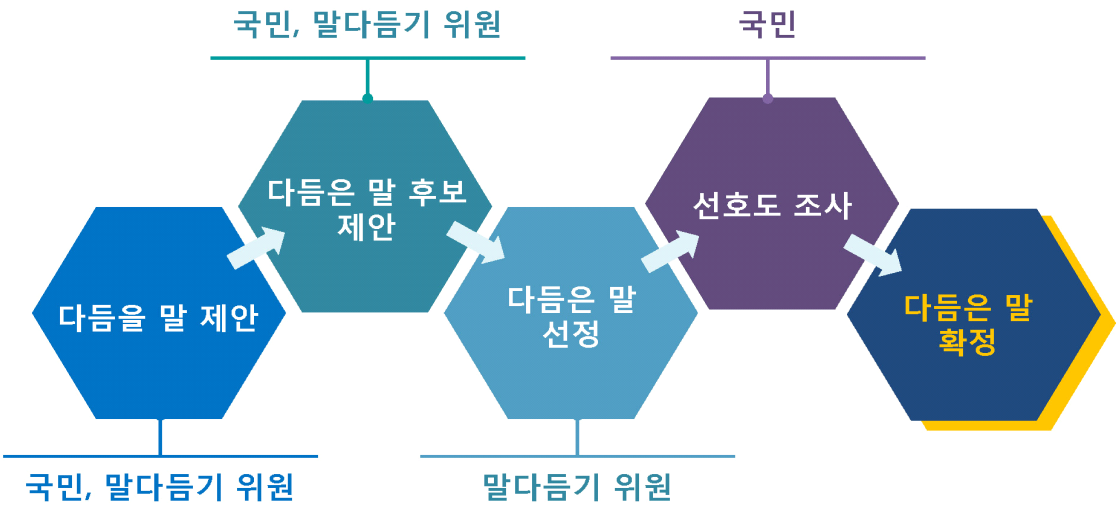
문인, 언론인, 출판인, 학자 등의 전문가 / 대학생 참관인

분기별 1회(연 4회) 개최

우리말 다듬기 2. 소통성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누리집**

■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



우리말 다듬기 2. 소통성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누리집**

■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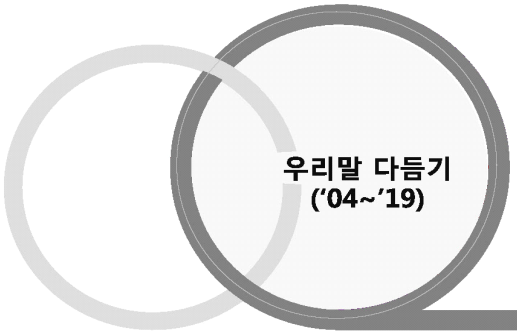
다듬을 말	다듬은 말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제
키스 앤드 라이드	환승 정차 구역
에어캡	뽁뽁이
오티피	일회용 비밀번호
싱크로율	일치율
콜백 서비스	전화 회신 서비스
로드 매니저	수행 매니저

우리말 다듬기의 주요점

	우리말 다듬기	한글 전용
목적	쉬운 말로 소통	언어 순화, 정화
추진	자율적	강제적
선정 주체	국민, 소수 전문가	소수 전문가
선정 방식	개방적	폐쇄적
전달	양방향적, 상향식	일방적, 하향식
대응	순차적	순차적
전문성	준전문적	전문적
활용	만화, 카드뉴스 등	용어집 발간

우리말 다듬기에서 새말 고르기로

우리말 다듬기에서 새말 고르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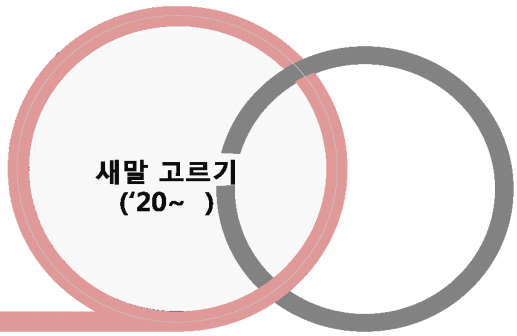


다듬은 말
양방향적, 아래에서 위로, 자율적
만화, 카드뉴스 등 제작

일반 국민 참여
대중성
개방적(말터 누리집 운영)

새말
동시다발적, 전방향적, 통합적
다양한 수요처에 직접 제공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
다양성, 신속성, 참신성
수용성



새말 고르기

■ **새말 모임**

다양성
국어 + 교육, 법학, 언론, 경제, 행정, 방송, 정보통신…

신속성
보도자료 중심의 새말 포착
누리 소통망에서 새말 논의

참신성
의미 / 조어 방식 / 활용

■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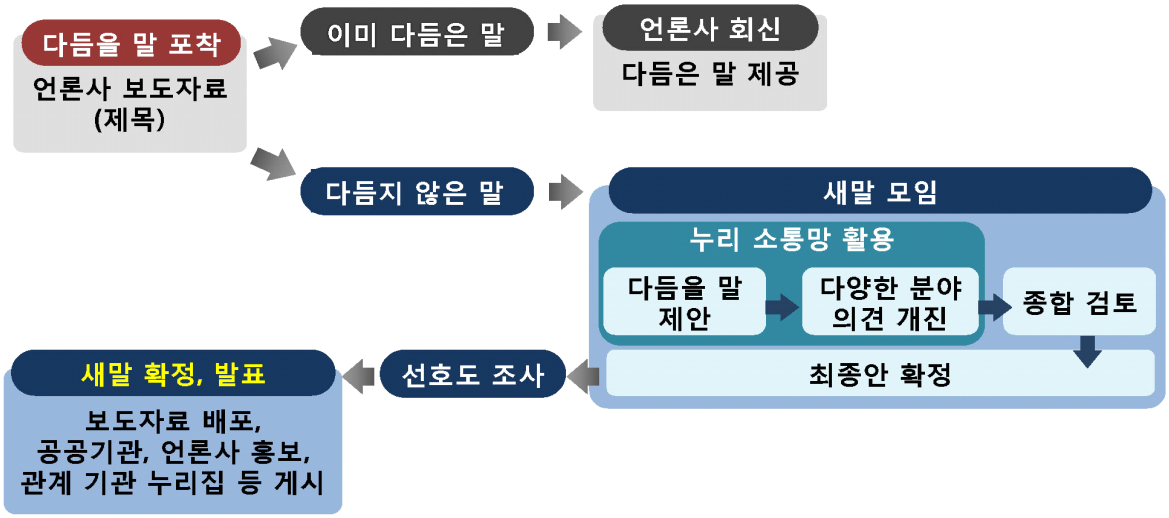
국어
문인, 언론, 출판

분기별 1회 개최
(연 4회)

보편적, 일반적 조합

새말 고르기

■ 새말 모임 운영 절차



새말 고르기

■ 새말이란?

1. 새롭게 쓰이는 낯설고 어려운 말

2. 낯설고 어려운 말을 대신할 쉽고 참신한 말

새말 고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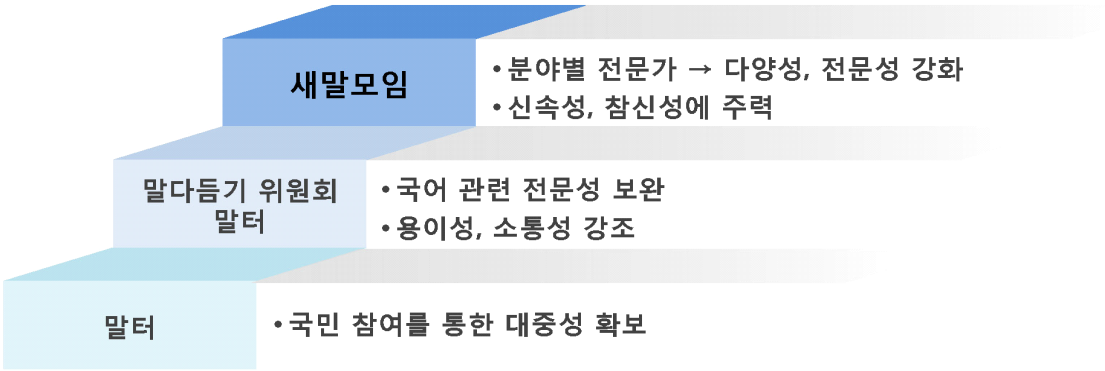
■ 새말 조어 방식

쓰담 달리기, 한모금, *찾동이, 쓰봉, 케바케, 키카…*
붙임쪽지(붙임딱지) ; 나심비(가심비(가성비))…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각자내기, 감각소리…*
반짝 광고, 반짝 세일 ; 누리꾼, 누리소통망, 누리집…
잰맞춤 생산(체계), 쓰담 달리기, *오래가게…*

새말 고르기의 주요점

	새말 고르기	우리말 다듬기
목적	**공감하는 새말 정착**	쉬운 말로 소통
추진	**통합적**	자율적
선정 주체	**분야별 전문가**	국민, 소수 전문가
선정 방식	**전방위적**	개방적
전달	**동시다발적**	양방향적, 상향식
대응	**즉각적**	순차적
전문성	**전문적**	준전문적
활용	**언론사 직접 제공**	만화, 카드뉴스 등

새말 고르기


새말모임
• 분야별 전문가 → 다양성, 전문성 강화
• 신속성, 참신성에 주력
말다듬기 위원회
말터
• 국어 관련 전문성 보완
• 용이성, 소통성 강조
말터
• 국민 참여를 통한 대중성 확보

"주제" 3

바우처 → 이용권

송부 → 보냄

자국어 순화 정책의 방향성 모색

: 프랑스와 퀘벡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채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스크린 도어 → 안전문

자국어 순화 정책의 방향성 모색

: 프랑스와 퀘벡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민 채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차례〉

1. 서론: 언어순수주의와 언어 정책
2. 프랑스와 퀘벡의 자국어 순화 정책
   2.1. 프랑스의 순화 정책
   2.2. 퀘벡의 순화 정책
   2.3. 종합
3. 현황 및 추세
   3.1. 프랑스
      3.1.1. 순화어 생산 조직 체계의 개편
      3.1.2. 신어 탐색 및 사용 분석
   3.2. 퀘벡
      3.2.1. 차용어 정책의 사회언어학적 기준 강화
      3.2.2. 대중의 언어 사용과 언어 정책의 격차 최소화
4. 결론: 자국어 순화 정책의 방향성

1. 서론: 언어순수주의와 언어 정책

프랑스와 퀘벡으로 대표되는 현대 프랑스어 정책은 프랑스어, 즉 자국어를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보호 정책에 의해 (영어) 차용어의 사용은 배척되고 자국어의 사용이 장려되는데 이는 차용어를 프랑스어의 순수성을 해하는, 따라서 제거되어야 마땅한 요소로 취급하였던 17세기 프랑스의 언어순수주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배척된 언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영어' 차용어의 범람으로부터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었다.

프랑스와 퀘벡의 언어 정책의 근저에는 이러한 언어순수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제 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어가 이러한 순수주의적 태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언어순수주의와 언어 정책을 분리하여 생각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표 1] 프랑스 언어 법제 내 핵심어의 변화(김민채 2018b: 244)

	핵심어
1966	수호, 확장
1972	**풍부화**
1973, 1980	수호, 확장
1983	**풍부화**
1984	전파, 장려, 수호, 선용
1984	프랑코포니, 현대 사회 내 프랑스어
1986	**풍부화**
1989	**풍부화**, 장려, 전파, 선용, 발전
1994	프랑스의 인격과 자산, 프랑코포니
1996, 2015	**풍부화**, 프랑코포니, 다언어 사용

위의 [표 1]로부터 우리는 **'풍부화(enrichissement)' 개념**이 프랑스 언어 정책 5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양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1]. 하지만, 차용어를 프랑스어를 '풍부[2]'하게 하는 요소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언어 정책의 근간에는 여전히 언어순수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언어의 순수성을 논하는 언어순수주의와 현대 프랑스어의 언어 정책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어기본법의 근간이 된 프랑스의 <투봉법(Loi Toubon,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령)>, 101호법(Loi 101)이라 불리는 퀘벡의 <프랑스어헌장(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 모두 프랑스어를 차용어의 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국어 보호의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와 퀘벡 모두, 언어순수주의를 근간으로 한 언어 정책의 역사가 깊은 지역이니만큼 한국의 국어 순화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언어 정책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순화 정책의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

1) 2015년 3월 25일에 개정된 <1996년 7월 3일 프랑스어 풍부화에 대한 데크레>에 의해 기존 '전문용어와 신어 총위원회'의 명칭이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로 바뀌기도 했다.

2) "TLF에 따르면, 동사 'enrichir'는 전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다." (김민채 2018b:250)

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는 자국어 순화 정책의 역사적인 측면이나 순화 정책 체계의 구성과 운영 방식[3]을 살피기보다는 정책 현황과 추세 분석을 통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2. 프랑스와 퀘벡의 자국어 순화 정책

프랑스와 퀘벡 자국어 순화 정책의 기본 골자는 '**프랑스어를 (차용어의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동일하며, 이 두 지역 모두 **자국어 순화 정책과 전문 용어 정비(표준화)[4]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전문 영역에서 프랑스어 용어의 사용을 늘려 외국어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언어 정책의 주요 목표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언어학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정책의 방향성이 서로 상이한바, 이 장에서는 '**개입 영역**', '**강제성**', '**용어 정비**', '**순화어의 특징**',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퀘벡의 자국어 순화 정책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프랑스의 순화 정책

현재 프랑스 언어 정책은 **투봉법(Loi Toubon)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령(Loi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1994)과 그 시행령인 <1996년 7월 3일 프랑스어 풍부화에 대한 데크레[5](Décret du 3 juillet 1996 relatif à l'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1996)에 근거하고 있다. 순화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국**(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이하 총국(DGLFLF))이며, 순화어의 목록은 **France*Terme***(http://franceterme.culture.fr)에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2.1.1. 개입 영역

투봉법의 시행령인 <1996년 7월 3일 프랑스어 풍부화에 대한 데크레>에 따르면, 프랑스의

3) 이에 관해서는 강미영(2018) 참조.
4) 전문 용어의 표준화는 한 개념을 가리키는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전제하며, 이 중 하나의 용어를 선정하여 용어의 사용을 수렴시키는 것이 바로 '표준화'이다. (김민채 2018b, 참조.)
5) 데크레(décret)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loi)의 하위에 위치한다. (김민채 2018b, 참조.)

순화 정책은 **경제(vie économique), 학술(travaux scientifique), 기술과 법(activités techniques et juridique)** 영역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주된 목표[6]로, **과학, 기술 분야의 어휘**를 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France*Terme*에 따르면, 순화어가 제안되는 전문 분야는 현재 76개 분야(2019년 9월 기준)로 세분화되어 있다. ([별첨 1] 참고)

2.1.2. 강제성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Commission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어 관보(Journal Officiel)에 실리게 된 어휘는 **공식 용어(termes officiels)**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 용어는 단순히 사용이 권장(recommandé)된 용어일 수도 있고 사용이 강제되는 표준화(normalisé)된 용어일 수도 있는데, 현재 **공식 용어들은 모두 사용이 권장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권장 용어라 할지라도 공공 영역, 특히 **행정 영역에서는 용어의 사용이 강제**되고 있으며, 1994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방송과 사영역과 같은 행정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는 용어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은 투봉법 내 순화어의 사용이 언급된 부분이다.

◆ *투봉법 제5조 1항*

공법상의 법인 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이 당사자인 계약은 그 대상과 형태를 불문하고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계약은 프랑스어 어휘 개발에 관한 규정들이 정한 조건에서 승인된 ***같은 의미의 프랑스어 용어 또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 외국어 용어 또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송기형 2015:82 번역)

◆ *투봉법 제14조 1항*

외국어 표현 또는 용어로 구성된 상표는 프랑스어 어휘 개발에 관한 규정이 정한 조건에서 승인된 ***같은 의미의 프랑스어 용어 또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 그 사용을 공법상의 법인에게 금지한다.*

(송기형 2015:86-87 번역)

---

6) 이는 시행령 <1996년 7월 3일 프랑스어 풍부화에 대한 데크레> 제1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프랑스어 풍부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히 경제, 학술, 기술 및 법률 활동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참조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용어와 표현을 제안함으로써 보급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랑코포니의 광명에 공헌하기 위하여, 다언어주의를 장려하기 위하여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가 탄생되었다. En vue de favoriser l'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de développer son utilisation, notamment dans la vie économique, les travaux scientifiques et les activités techniques et juridiques, d'améliorer sa diffusion en proposant des termes et expressions nouveaux pouvant servir de référence, de contribuer au rayonnement de la francophonie et de promouvoir le plurilinguisme, il est créé une commission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78502&dateTexte=20190915)

현재 투봉법에 의거, 가장 강력하게 권장 용어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행정 영역에 제한된다.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프랑스어 사용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2016년 10월 1일 자 발행, 행정공문(dispositions relatives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dans la fonction publique)에서도 행정 문서에서의 공식 용어 사용의 강제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1) 업무, 공문 작성, 편지, 초대장 등에 프랑스어를 사용할 것
2) 명확하고 분명한 프랑스어를 사용할 것
3) 프랑스어권이나 통역이 가능한 외국 출장 시에 프랑스어를 사용할 것
4) 모든 문서에는 관보에 발표된 프랑스어 대응어를 사용할 것
5) 행정 문서 작성 및 행정 용어 지침을 참고할 것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어휘 사용의 '강제성'은 행정 영역에서조차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강제성**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용이 강제되긴 하지만 이를 어겼을 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영역 내 권장 용어 사용의 강제성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언어 사용의 본보기(exemplarité)[7]를 보여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8]에 충실한 결정이라 본다.

2.1.3. 용어 정비

여러 어휘가 같은 의미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 경쟁적 상황에서 '단 하나'의 공식 용어가 선택되기 때문에 **프랑스의 순화 정책은 전문 용어 표준화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30년대 프랑스에 이미 전문 용어 정비 관련 기관이 생겼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의 전문 용어 정비 정책의 역사는 매우 길다고 할 수 있다.

2.1.4. 순화어의 특징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가 이야기하는 신어의 선정 기준[9]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필요성(nécessité)**. 신어를 생산하는 것이 개념을 지칭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인가?

7) DGLFLF(2018:4) 참조.
8) 언어 정책에 관한 한, 프랑스 정부의 역할은 감시와 지원이다.
9) DGLFLF(2018:7) 참조.

2) **명료성(transparence).** 용어가 그것이 지칭하는 개념이나 현실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3) **올바른 구성(bonne formation)**. 용어가 프랑스어의 형태, 통사 원칙을 준수하는가?

위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으로, 실제 프랑스 정부가 제안하는 순화어를 분석하면, 프랑스 정부의 순화어는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예)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10)]

1) 기존에 사용되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블로그(Bloc-notes*)
2) 이미 유사한 혹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프랑스 단어를 재확인: *부스트(relancer)*
3)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기관이 만든 단어를 순화어로 선정: *컴퓨터(ordinateur)*
4) 프랑스어 체계를 해치지 않는 영어 차용어들을 인정: *서포터(supporteur)*
5) 의미를 잘 드러내는 단어를 선정하는 것을 선호: *채팅(dialogue en ligne)*
6) 하나의 영어 차용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경우, 각 의미에 서로 다른 순화어를 선정: *해커 (fouineur, pirate)*
7) 실패한 순화어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다른 순화어로 교체: *채팅(causette-> dialogue en ligne)*

2.2. 퀘벡의 순화 정책

현재 퀘벡의 언어 정책은 101호법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어헌장(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1977)에 근거하고 있다. 순화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퀘벡불어청**(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 OQLF)이며, 순화어의 목록은 **Grand dictionnaire terminologique**(http://www.granddictionnaire.com)에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2.2.1. 개입 영역

총 214개의 조로 구성되어있는 101호법에 따르면, 퀘벡의 언어 정책은 **노동, 의사소통, 교육, 상업 분야**의 프랑스어 사용을 보장하여 프랑스어 화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언어 정책은 특히 다음의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Kim 2013:40 참조.)

1) 공공장소 내 광고, 게시물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을 늘린다.
2)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서비스를 개선한다.
3) 회사 내, 노동자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Kim(2013: 46) 참조.

4) 어린 이민자들이 프랑스어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목적은 퀘벡주에 거주하는 프랑스어 화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퀘벡 내 프랑스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순화어가 제안되는 분야가 프랑스보다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Grand dictionnaire terminologique(GDT)에 따르면, 순화어가 제안되는 분야는 현재 167개 분야로,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별첨 2] 참고)

2.2.2. 강제성

프랑스에서처럼 관보(Gazette officielle du Québec)에 실리게 된 순화어는 **행정과 교육 영역에서의 사용이 강제**된다. 이는 <헌장>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다.

◆ *프랑스어헌장 제118조*

불어청이 표준화한 표현과 어휘가 퀘벡 관보에 실리는 즉시, 행정부가 발행하는 글, 문서, 게시문에 그 사용이 강제될 뿐 아니라 행정부가 관계하는 계약, 퀘벡 내 프랑스어로 출판되면서 교육여가체육부의 승인을 받은 연구, 교육 서적에도 그 사용이 강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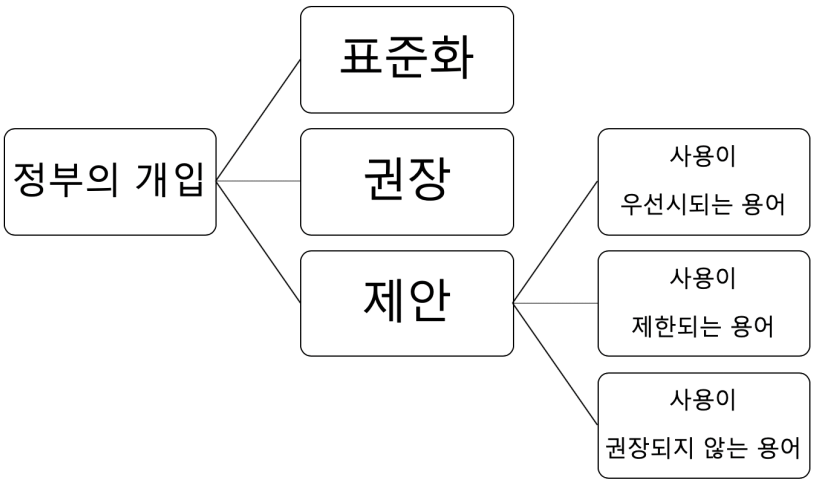
(http://www.legisquebec.gouv.qc.ca/en/showdoc/cs/C-11?langCont=fr)

하지만, 프랑스와 동일하게 이러한 **강제성은 다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어헌장>의 내용이 위반됨을 목격하였을 경우, 퀘벡불어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형사 처벌보다는 권고, 교육하는 쪽**으로 처리되는 추세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퀘벡불어청의 순화어 제안 활동을 통해서도 이러한 강제성이 다소 상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퀘벡 순화어의 여러 지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바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어헌장> 제118조의 내용을 보면, 불어청이 '표준화한(normalisé)' 표현과 어휘의 사용이 일부 영역에서 강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성이 상징적인 이유는 실제 순화어를 '표준화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순화어에 관한 정부의 다양한 개입 방식을 표상한 [그림 1]에 따르면, 퀘벡의 순화어는 원칙적으로 표준화(normalisation), 권장(recommandation), 제안(proposition)의 세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 퀘벡불어청의 순화어 제안 활동을 살펴보면 **현재 정부에서 생산하는 모든 순화어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제안'된 순화어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표준화한 순화어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상태이다. 또한 정부가 용어를 '사용이 우선시되는 용어(termes privilégiés)', '사용이 제한되

는 용어(termes à l'usage restreint)',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용어(termes déconseillés)', 세 가지로 세분하여 올바른 어휘의 사용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로도 **순화어 사용의 강제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자체를 '교육'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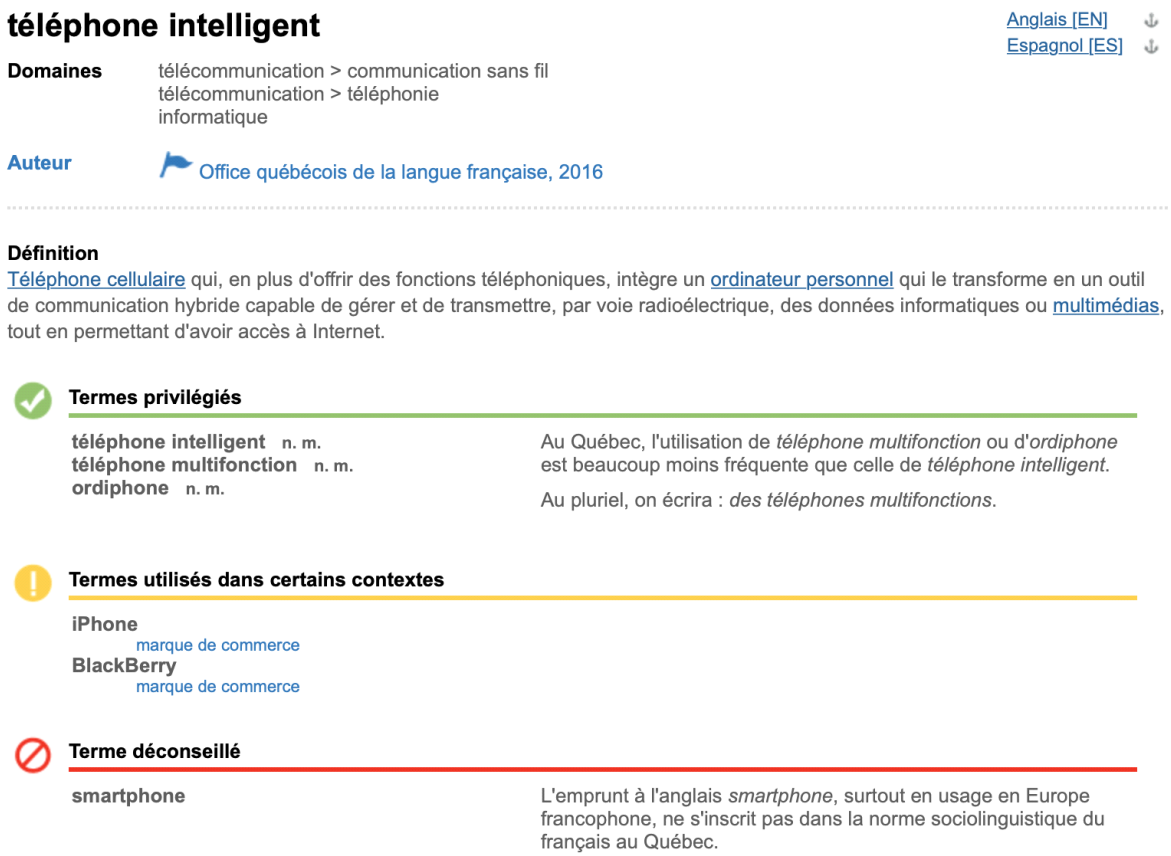
[그림 1] 순화어에 관한 정부의 다양한 개입 방식(Kim 2013 참조.)



2.2.3. 용어 정비

퀘벡의 순화어 정책은 용어의 표준화와는 거리가 멀다. 퀘벡의 정책은 여러 어휘를 제안하여 사용자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용어를 '사용이 우선시되는 용어', '사용이 제한되는 용어',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용어'로 세분화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거니와, 각각의 범주에 하나 이상의 어휘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말 그대로 어휘를 '제안'하는 것일 뿐 이 중 하나의 어휘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Grand dictionnaire terminologique 내 '스마트폰(smartphone)'의 예이다. 항목을 보면 '우선시되는 용어'가 세 개(téléphone intelligent, téléphone multifonction, ordiphone), '사용이 제한되는 용어'가 두 개(iPhone, BlackBerry),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용어'는 차용어인 'smartphone' 한 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이 우선시되는 용어 중 하나인 'téléphone intelligent'이 표제어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스마트폰의 순화어 제안



téléphone intelligent

Anglais [EN]
Espagnol [ES]

Domaines télécommunication > communication sans fil
télécommunication > téléphonie
informatique

Auteur 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 2016

Définition
Téléphone cellulaire qui, en plus d'offrir des fonctions téléphoniques, intègre un ordinateur personnel qui le transforme en un outil de communication hybride capable de gérer et de transmettre, par voie radioélectrique, des données informatiques ou multimédias, tout en permettant d'avoir accès à Internet.

Termes privilégiés

téléphone intelligent n. m.
téléphone multifonction n. m.
ordiphone n. m.

Au Québec, l'utilisation de *téléphone multifonction* ou d'*ordiphone* est beaucoup moins fréquente que celle de *téléphone intelligent*.
Au pluriel, on écrira : *des téléphones multifonctions*.

Termes utilisés dans certains contextes

iPhone
marque de commerce
BlackBerry
marque de commerce

Terme déconseillé

smartphone

L'emprunt à l'anglais *smartphone*, surtout en usage en Europe francophone, ne s'inscrit pas dans la norme sociolinguistique du français au Québec.

(http://www.granddictionnaire.com/ficheOqlf.aspx?Id_Fiche=8360216)

2.2.4. 순화어의 특징

퀘벡 정부의 신어 선정 기준은 크게 언어적 기준과 전문 용어학적 기준, 두 가지에 따른다. 이 두 기준은 서로 보완적인데, 각 기준은 다음과 같다.[11]

1) 언어학적 기준
   1.1) 프랑스어의 음운론적 체계와 철자 체계에 부합할 것
   1.2) 부정적 함축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의미상 혼동이 없을 것
   1.3) 생산성을 지니고 있을 것(파생어)
   1.4) 제안되는 신어는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과 일대일 대응 관계를 이룰 것
   1.5)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
2) 전문 용어학적 기준

11) 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1979)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순화어를 실제로 분석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2)]

1)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영어 차용어의 사용을 인정: 베이컨(bacon), 조깅(jogging)
2) 퀘벡 고유어법의 사용을 장려
3) 다른 프랑스어권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에 관심
4)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다소 긴 순화어를 사용: *코믹북(bande dessinée états-unienne de super-héros)*
5) 여러 어휘를 제안하여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3. 종합

앞서 언급한 프랑스와 퀘벡의 순화어 정책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프랑스와 퀘벡의 순화어 정책(종합)

	개입 영역	강제성	용어 정비	순화어 특징
프랑스	과학, 기술 (전문어)	행정 영역 (정부에서 제안한 모든 순화어 대상)	용어 정비 성격 존재	엄격한 언어적 기준
퀘벡	노동, 교육, 상업 (전문어+일반어)	행정 영역 (정부에서 제안한 일부 순화어 대상)	용어 정비 성격 존재하지 않음	느슨한 언어적 기준

2장의 내용을 정리한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와 퀘벡의 순화어 정책은 개입 영역, 강제성, 용어 정비, 순화어의 특징, 네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퀘벡의 정책은 일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예외들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프랑스의 정책은 명확한 언어적 기준으로 프랑스어의 올바른 사용을 강제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상이한 사회언어학적 환경에 기인한 여러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긴 힘들겠지만, 분석을 통해 우리는 **프랑스의 정책이 퀘벡의 정책보다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다소 거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2) Kim(2013: 53-54) 참조.

3. 현황 및 추세

이 장에서는 최근 프랑스와 퀘벡의 언어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정책의 방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프랑스의 경우 <1996년 7월 3일 프랑스어 풍부화에 대한 데크레>가 개정된 2015년을 기준**으로, **퀘벡의 경우 새로운 차용어 정책 기준이 발표된 2017년을 기준**으로 언어 정책의 변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3.1. 프랑스

3.1.1. 순화어 생산 조직 체계의 개편

<1996년 7월 3일 프랑스어 풍부화에 대한 데크레>의 2015년 3월 25일 개정안으로 기존 순화어 생산 조직 체계는 일련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변화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문용어와 신어 총위원회(Commission générale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라는 명칭이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Commission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CELF)'로 변경되었다. 둘째, 부처 내 '전문용어와 신어 위원회'가 사라지고, 전문가(언어 정책 전문가, 부처 관계자, 기자 등)로 구성된 19개의 '전문가 위원회'가 생겼다. 셋째, '전문가 위원회'의 장으로서 장관이 지정한 총 10명의 고위 공무원(haut fonctionnaire)이 부처 내 전문용어와 프랑스어 사용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 중, 변화의 핵심은 **'고위 공무원' 직권의 강화**이라 할 수 있다. 각 부처 소속의 고위 공무원은 총국(DGLFLF)과 부처를 잇는 중계자로, 각 부처 내 프랑스어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사실, '고위 공무원'의 직위는 1996년 데크레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것이다. 다음은 <1996년 7월 3일 프랑스어 풍부화에 대한 데크레> 내 '고위 공무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 ◆ *제5조*
>
> *각 장관은 그가 관여하는 행정 영역에서 언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전문 용어와 신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한 명을 임명한다.*
>
> (https://www.legifrance.gouv.fr)

하지만 기존의 데크레에서 '고위 공무원'의 역할은 다소 미미했다. 신어를 전파하거나 그 사용을 감시하는 임무가 부여되긴 하였지만, 이는 다소 축소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그의 임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언급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제5조*

[...] 전문 용어와 프랑스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은 각 부처 내에 위치한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국의 중계자이다.

그가 속한 부처의 영역 내 전문가 그룹의 작업에 참여하는 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전문가 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식별한다.

- 전문가 그룹의 대표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에 관해 전문가 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는 또한 프랑스어의 사용에 관계된 모든 질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https://www.legifrance.gouv.fr)

이와는 별도로 용어를 검토하고 선정하는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에 고위 공무원이 참석해야 함이 명시되었으며(제8조), 매년 1월 15일 전에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 또한 부과되었다(제15조).[13] 이를 통해 우리는 2015년, 데크레가 개정되면서 '고위 공무원'을 중심으로, **순화어 생산 조직 체계가 이전보다 유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1.2. 신어 탐색 및 사용 분석

순화어 생산 조직 체계의 개편과 동시에 신어의 사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총국(DGLFLF)은 2016년부터 프랑스 대학들과 연계하여 **대규모 코퍼스 내 신어의 사용을 분석하는 연구 활동**(감시자들(Veilleurs))을 전개하고 있으며 언어와 디지털(Langue et numérique)이라는 이름하에 언어를 분석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 중 세 프로젝트('Logoscope', 'Néoveille', 'Néonaute')의 목적과 방법을 간략히 분석해 봄으로써 프랑스 언어 정책의 추세를 예측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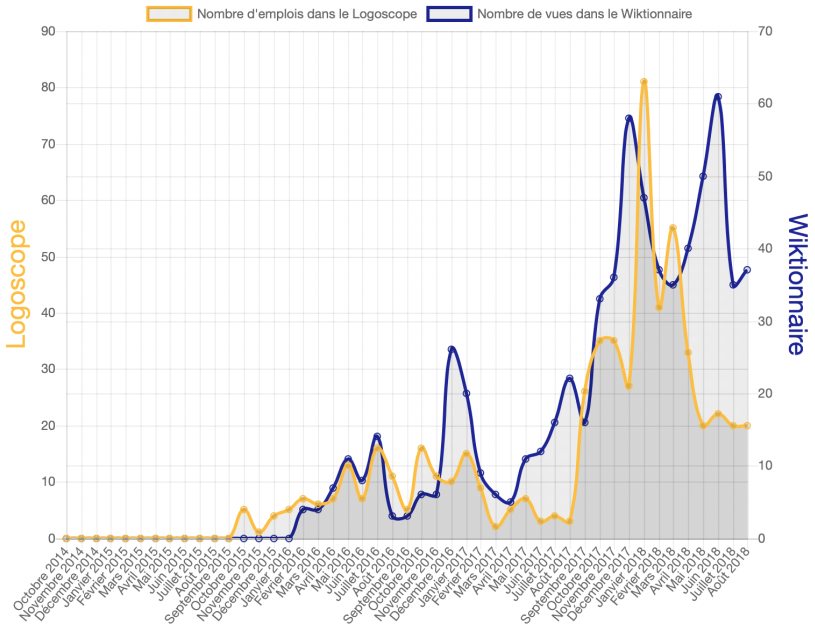
1) Logoscope (http://logoscope.unistra.fr/)

'Logoscope'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대학(Université de Strasbourg) 내 LiLPa (Linguistique, langues, parole) 연구소가 총국(DGLFLF)의 지원(2015년)을 받아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프랑스의 다양한 언론사 사이트**(Huffington Post, La Croix, La Recherche, La Tribune, Le Figaro, Le Monde, L'Équipe, Les Echos, Libération, Science et vie)**를 검**

13) 1996년 데크레에서는 각각의 전문 위원회에 이러한 임무가 부여된 바 있다.

색하여 신어를 탐색하는 반자동 언어 사용 관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신문을 코퍼스로 삼기 때문에 전문 용어보다는 **대중적 신어의 생성을 살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변화의 모습을 살피는 등, 인문 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기초가 될 언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3] Logoscope 단어 사용 추이 분석(Blockchain의 경우)



2) **Néoveille** (https://tal.lipn.univ-paris13.fr/neoveille/)

'Néoveille'는 파리 13대학을 주축으로 **7개의 언어**(프랑스어, 그리스어, 폴란드어, 체코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러시아어)**에서 발견되는 신어의 사용 추이를 분석하는 검색 플랫폼을 만드는 다국적 프로젝트**이다. 신어 중에서도 **영어 차용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론적 신어(néologisme sémantique)**를 식별해 내는 것이 목적이다.

3) **Néonaute** (https://tal.lipn.univ-paris13.fr/neonaute/)

'Néonaute'는 앞선 두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프랑스 국립 도서관(BNF)의 전자 납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신어의 정착 정도를 보여주는 검색 엔진을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앞선 'Logoscope'와 'Néoveille'가 실제 언어 사용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구글(Google)과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한 빅데이터 검색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신뢰도가 높은 전자 납본 데이터베이스(10테라)를 사용한 검색 엔진을 통해

1996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의 어휘의 사용 추이와 정착 정도를 살피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세 프로젝트는 **코퍼스로부터 신어를 탐지해 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용 추이를 분석하는 자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코퍼스 구축, 시맨틱웹(Semantic Web) 등 언어 자료의 디지털화, 디지털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언어 정책의 기반 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총국(DGLFLF)이 2016년부터 언어와 디지털(langues et numérique)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것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단순히 추이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종의 정책 평가 자료로서 언어 정책에 재적용할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2. 퀘벡

3.2.1. 차용어 정책의 사회언어학적 기준 강화

퀘벡의 순화어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가장 최근의 변화는 **새로운 차용어 정책이 발표된 2017년**이다. 1980년, 퀘벡프랑스청이 차용어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이후, 퀘벡의 차용어 정책은 2007년과 2017년, 두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다음의 [표 3]은 퀘벡 차용어 정책의 변화 내용을 법적 근거, 정책 목적, 개입 원칙, 차용에 대한 정의, 적용 범위, 분류 기준, 차용어의 수용 기준의 7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3] 퀘벡 차용어 정책의 변화(김민채 2018a)

	1980년	2007년	2017년
법적 근거	프랑스어헌장(CLF) 제113조a	프랑스어헌장(CLF) 제159조, 제161조, 제162조	
정책 목적	차용어에 대한 정책 기준 마련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차용어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프랑스어의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	
개입 원칙	규정적	사회언어학적	
차용에 대한 정의	차용 과정	차용 과정과 차용 결과인 차용어까지 포함	
적용 범위	어휘 차용	어휘 차용과 약간의 통사 차용	
분류 기준	일반 언어 vs. 전문 영역의 언어	영어 차용 vs. 토착 언어 차용 vs. 그 외 언어 차용	영어 차용 vs. 그 외 언어 차용
차용어의 수용 기준	언어학적 기준과 사회언어학적 기준 (한정적)	언어학적 기준과 사회언어학적 기준	언어학적 기준과 사회언어학적 기준 (사회언어학적 기준을 우선시)

이 변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두 가지로 첫째, **차용을 어휘 생산성을 높이는 언어 풍부화 과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 **차용어가 대중의 언어생활 내 침투한 정도를 살피는 사회언어학적 기준을 차용어 수용 기준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차용어가 '프랑스어를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프랑스의 규정적인 언어 정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영어와의 직접 접촉으로 인해 차용어의 범람이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퀘벡의 지리언어학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놀랍기까지 하다.

사실, 퀘벡 불어청이 창설된 1961년 이후 2007년까지, 4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퀘벡은 차용어 정책에 관한 한 매우 개입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규정적인 성격을 버리고 다소 느슨한 태도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지위 계획(Status planning)이 성공한 것에 기인한다.** 1950년~60년대 영어에 밀려 소수 언어로 전락하고 있었던 프랑스어의 위상을 오늘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정부의 효율적인 언어 정책 덕분이었다. 특히 퀘벡 프랑스어청은 101호법에 근거하여 프랑스어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오늘날 퀘벡 프랑스어청이 차용어 정책에 관한 한 규정적인 성격을 제거하고 대중의 언어사용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입장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지위 계획의 성공으로 대중들의 의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퀘벡 내 프랑스어 화자들의 언어 태도를 조사한 Kim(2017)에 의하면, **퀘벡의 프랑스어 화자들은 국가의 언어 정책을 매우 신뢰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국가가 개인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는 데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태도는 퀘벡 정부가 프랑스어 지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끈 결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퀘벡의 상황은 물론 우리의 상황과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퀘벡의 자국어 순화 정책은 **강압적인 개입주의를 고수하지 않더라도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 **자국어 순화에 있어 지위 계획(status planning)과 자료 계획(corpus planning)이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3.2.2. 대중의 언어 사용과 언어 정책의 격차 최소화

첫 번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대중의 언어 사용과 언어 정책 사이의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퀘벡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2017년 차용어 정책 발표 직후 진행된 퀘벡 일간지 Le Devoir와 불어청의 인터뷰 기사[14]에서 퀘벡불어청의 언어 서비스 부서의 장을 맡고 있는 다니엘 퀴르코트(Danielle Turcotte)는 차용어에 대한 태도를 바꾼 이유 중 하나를 이야기하

14) <OQLF, 영어 차용어에 문을 열다(L'OQLF ouvre la porte aux anglicismes)>, Le Devoir, 2017년 9월 18일 기사 (https://www.ledevoir.com/societe/508260/l-office-quebecois-de-la-langue-francaise-applique-sa-nouvelle-politique-des-emprunts-linguistiques)

면서 **대중의 언어 사용과 괴리가 큰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여태까지 진행된 모든 자국어 순화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차용어에 대한 퀘벡불어청의 태도 변화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불어청의 임무는 언어 사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대중의 언어 사용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것에 반대를 표하고 있지만 불어청의 태도는 우리에게 **현실과의 격차가 큰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4. 결론: 자국어 순화 정책의 방향성

프랑스와 퀘벡, 우리나라는 **각기 다른 사회언어학적 환경**에 놓여 있기에 정책의 모습, 발전 과정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국가의 언어 정책은 **모두 차용어의 범람으로부터 '자국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프랑스와 퀘벡 언어 정책의 현황과 추세를 살펴봄으로부터 자국어 순화 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국민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
2) 정책 평가 제도의 도입
3) 순화어 생산 절차의 간소화, 보급 속도와 방법
4) 지위 계획과 자료 계획의 균형 있는 발전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민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시사점은 자국어 순화 정책에 **국민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국민의 언어생활에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명시적인 개입은 경우에 따라 국민들의 반감을 키울 수도 있으며, (앞서 살펴본 퀘벡의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처럼) 국민의 언어생활과 괴리가 큰 정책을 고수하는 것 또한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어 순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첫 번째는 국민의 언어 사용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되어

야 한다. 이는 **대규모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인데, 순화어 정책에 특화된 설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외래어와 순화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국가의 언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언어 태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언어 태도와 실제 언어 사용 간의 격차가 어떠한지 또한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국어 순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정책 평가 제도의 도입

현재까지 진행된 순화어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순화어 정책은 순화어를 생산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순화어 정책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부가 제안한 순화어의 사용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어 순화 정책 또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프랑스와 퀘벡에서는 1990년대부터 순화어의 정착 정도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퀘벡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용어 정착 계수(coefficient d'implantation terminologique)'라고 불리는 개념을 필두로 **용어 정착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비교적 체계적인 방법론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를 발전시켜 용어 정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류하고, 이 둘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Kim 2017) 또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순화어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순화 정책을 수정해 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본다.

3) 순화어 생산 절차의 간소화, 보급 속도와 방법

세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순화어 생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보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실제 용어 정착의 요인을 분석한 Kim(2017)의 연구에 따르면, **용어를 제안하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해당 용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언어학적으로 좋은 순화어를 생산, 선정하는 것 또한 순화 정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에 순화어를 생산하여 이를 보급하는 것은 순화어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단어 선택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본다면, 대중은 이미 존재하는 어휘 목록에서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될 터인데 이 때 마땅한 순화어가 없다면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외래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한번 굳어진 단어의 사용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일 또한 큰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퀘벡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어의 선정 기준에 '언어 사용자

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최근 순화어 생산 체계가 개편된 것이나 신어를 탐지하고 사용 추이를 분석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순화어 생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의 일환일 수 있겠다.

4) 지위 계획과 자료 계획의 균형 있는 발전

마지막으로 **지위 계획과 자료 계획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순화어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력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자국어 순화 정책은 자료 계획에만 머무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지위 계획 또한 자국어 순화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 사회 내 영어가 가지는 가치는 프랑스와 퀘벡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 차용어가 순화어에 비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사용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퀘벡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퀘벡은 영어권과의 직접적인 접촉, 영어에 더욱 높은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는 암담한 사회언어학적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자국어의 위상을 지켜낸 바 있다. 지위 계획을 통해 프랑스어의 위상을 높여 자국어 순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퀘벡의 경우처럼, 우리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어의 가치와 그 위상을 높인다면 순화어 정책의 성공 또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 자료

강미영(2018), "최대한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프랑스어 풍부화 정책", 《새국어생활》 28-4, 191-211쪽.

김민채(2018a), "퀘벡의 언어 규범과 언어 정책: 과거와 현재", 한국퀘벡학회 2018년도 제20차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77-100쪽.

김민채(2018b), "전문 용어 정비에 관한 유럽 내 프랑스어권 국가의 언어 법제 비교 연구", 《프랑스 문화연구》 제39집, 235-260쪽.

송기형(2015), 현대 프랑스의 언어 정책, 한국문화사.

퀘벡 법률 검색 포털: http://www.legisquebec.gouv.qc.ca

퀘벡불어청 누리집: https://www.oqlf.gouv.qc.ca/accueil.aspx

프랑스 법률 검색 포털: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국(DGLFLF) 누리집: http://www.dglf.culture.gouv.fr

DGLFLF(2018), "Références 2018 : l'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DGLFLF.

France *Terme* 누리집: http://www.culture.fr/franceterme

Grand dictionnaire terminologique 누리집: http://granddictionnaire.com

Kim, Minchai(2013), “L’anglicisme et l’intervention linguistique gouvernementale”, Mémoire de Master 2, Université Paris-Sorbonne.

Kim, Minchai(2017), “Variation terminologique en francophonie: élaboration d’un modèle d’analyse des facteurs d’implantation terminologique”,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Paris-Sorbonne.

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1979), Néologie en marche. Série b: langues de spécialités, Office de la langue française.

WikiLF 누리집: http://wikilf.culture.fr

▮별첨 1. 프랑스 순화어 분야(76 분야)

acoustique	음향	industrie	산업
activités postales	우편	informatique	정보 과학
aérodynamique	공기 역학	ingénierie nucléaire	원자력
aéronautique	항공	littérature	문학
agriculture	농업	loisirs	여가
alimentation	식품업	marine	해양
aménagement et urbanisme	도시 계획	matériaux	재료
armement	병기	mathématiques	수학
arts	예술	mécanique des fluides	유체 역학
assurance	보험	météorologie	기상학
astronomie	천문	métrologie	계측
audiovisuel	시청각	moteur thermique	열기관
automatique	자동화 공학	motocycle et cycle	사이클
automobile	자동차	optique	광학
biologie	생물학	pêche et aquaculture	어업과 양식업
chimie	화학	pétrole et gaz	석유와 가스
combustibles solides	고체 연료	physique	물리학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physique de l'atmosphère	대기 물리
culture	문화	politique	정치
défense	보안	recherche	학술 연구
droit	법	relations internationales	국제 관계
économie et gestion d'entreprise	경제, 기업 관리	restauration	외식 산업
économie générale	경제 일반	robotique	로봇 공학
édition et livre	출판과 서적	santé animale	동물 의료
éducation	교육	santé et médecine	건강과 의료
électricité	전기	sciences	과학
électromécanique	전기 공학	sciences de la nature	자연 과학
électronique	전자 공학	sciences de la Terre	지구 과학
emploi et travail	고용	sciences humaines	인문학
énergie	에너지	social	사회
enseignement supérieur	고등 교육	spatiologie	우주 과학 기술
environnement	환경	sports	스포츠
finance	재정	statistiques	통계
forêt	산림	télécommunications	전기 통신
formation	직업 교육	télédétection spatiale	우주 원격 탐사
habillement et mode	의복과 패션	toponymie	지명
habitat et construction	주거과 건설	tourisme	관광
hydraulique	수력 발전	transports et mobilité	교통과 이동성

▌별첨 2. 퀘벡 순화어 분야(167 분야)

abrasif	연마	industrie du café	커피 산업
administration publique	행정학	industrie du cannabis	마리화나 산업
aéronautique	항공술	industrie du cuir	가죽 산업
agent de surface	환경 미화	industrie du sucre	설탕 산업
agriculture	농업	industrie du tabac	담배 산업
alimentation	식품업	industrie minière	광산업
aménagement du territoire	국토 정비	industrie papetière	제지업
aménagement faunique	동물학	informatique	정보 과학
amiante	석면	ingénierie	엔지니어링
appareil	기구	intelligence artificielle	인공 지능
appellation de personne	호칭	journalisme	저널리즘
arme	무기	laboratoire	실험실
armée	군대	laiterie	우유 가공
art	예술	liège	코르크
article de fumeur	흡연 기구	linge de maison	침구
assemblée	집회	linguistique	언어학
assurance	보험	loisir	여가
astronautique	우주 비행	malterie	맥아 제조
astronomie	천문학	manutention et stockage	운반과 창고업
audiovisuel	시청각	marine	해양
bijouterie	귀금속	matériel de fixation	고정 기구
biologie	생물학	matériel de terrassement	토지 조성 기구
botanique	식물학	mathématiques	수학
brasserie	맥주 양조	matière plastique	플라스틱
bureau	사무실	médecine	의학
câble en acier	강선 케이블	métallurgie	야금술
caoutchouc	고무 제조업	métallurgie des poudres	분말 야금
cartographie	지도 제작	mobilier	가구류
céramique	도예	nanotechnologie	나노 기술
charbon	석탄	nettoyage	청소
chaussure	신발	normalisation	표준화
chemin de fer	철도	océanographie	해양학
chimie	화학	œnologie	포도주 양조학
cinéma	영화	organisation	조직
commerce	상업	outillage	연장
comptabilité	회계	pêche	어업
correspondance	통신	peinture	도료
cosmétologie	미용술	pétrochimie	석유 화학
cybernétique	인공 두뇌학	pétrole et gaz naturel	석유, 천연 가스
décoration	장식술	pharmacologie	약리학
démographie	인구 통계	philosophie	철학

dessin technique	제도	photogrammétrie	사진 측량
développement durable	지속가능한 발전	photographie	사진
droit	법	physique	물리학
eau	물	plomberie	배관
éclairage	조명	police	경찰
écologie	생태학	politique	정치
économie	경제	poste	우편
édition	편집	probabilité	확률
éducation	교육	protection contre l'incendie	화재 방지
élection	선거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환경 보호
électricité	전기	psychologie	심리학
électroacoustique	전기 음향	publicité	광고
électronique	전자 공학	pyrotechnie	화약 제조업
emballage et conditionnement	포장	radio	라디오
énergie	에너지	religion	종교
engagement international	국제 협상	repassage	다림질
entraînement physique	체육	route	도로
entreprise	기업	saline	제염
équipement ménager	주방 설비	science de l'atmosphère	기후학
ethnologie	민족학	science de l'information	정보 과학
finance	재정	sécurité	안전
foresterie	삼림 개발	serrurerie	열쇠업
généralité	일반	services funéraires	장례업
génie climatique	기후학	sexologie	성의학
génie mécanique	기계	sociologie	사회학
géographie	지리	soudage	용접
géologie	지질학	sport	스포츠
géomatique	지리 정보학	statistique	통계
gestion	경영	tamisage	체
graphisme	그래픽 아트	technique	기술
habillement	의복	télécommunication	정보통신
hébergement et tourisme	숙박업과 관광업	télédétection	원격 탐사
histoire	역사	télévision	텔레비전
horlogerie	시계 제조업	textile	섬유
imprimerie	인쇄	thé	차
industrie	산업	transport	교통
industrie automobile	자동차 산업	travail	업무
industrie de la confection	제조업	travail des métaux	금속 세공
industrie de la construction	건설업	urbanisme	도시 계획
industrie des gaz atmosphériques	대기 가스 산업	verre	유리, 안경
industrie des réfractaires	내화물 산업	zoologie	동물학
industrie des stratifiés décoratifs	장신용 합판 산업	zootechnie	축산학
industrie du bois	제재업		

"주제" 4

바우처 → 이용권

송부 → 보냄

다듬은 말의 언론 사용 현황

: 대규모 신문 말뭉치를 기반으로

김일환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스크린 도어 → 안전문

성신여자대학교

다듬은 말의 언론 사용 현황
- 신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김일환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발표 순서

- 도입
- 신문 빅데이터의 규모
- 다듬은 말 목록
- 언론에서의 사용 추이
- 다듬은 말의 빈도 추이별 특성
- 결론 및 향후 과제

2

성신여자대학교

도입

- 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어 순화 정책의 한 결과인 '다듬은 말'을 대상
  - 이들이 실제 언론에서 사용되는 현황을 신문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 국어 순화의 대상, 방향 등에 대한 단서를 획득하고자 함
- 순화의 결과인 '누리꾼, 댓글' 등의 사용 양상을 통해
  - 국어 순화의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으나
  - 주지하다시피 심의, 고지된 많은 '다듬은 말'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지 못함
- 이 발표에서는 순화의 대상이 되는 외래어와 다듬은 말의 사용 분포를 시기적인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언론 속의 순화어 사용 양상을 명시적으로 밝혀보고자 함

3

성신여자대학교

신문 빅데이터의 규모

연도	기사 수	어절 수
2000년	231,361	40,377,975
2001년	220,109	39,728,480
2002년	214,941	42,298,083
2003년	205,635	42,959,317
2004년	200,260	40,652,017
2005년	180,413	38,062,190
2006년	162,055	37,539,133
2007년	177,743	42,432,005
2008년	176,697	42,322,623
2009년	164,314	43,230,845
2010년	170,338	48,307,337
2011년	157,755	44,425,114
2012년	153,227	44,017,316
2013년	152,348	45,367,321
전체	2,567,196	591,719,756

표 1. '물결 21' 코퍼스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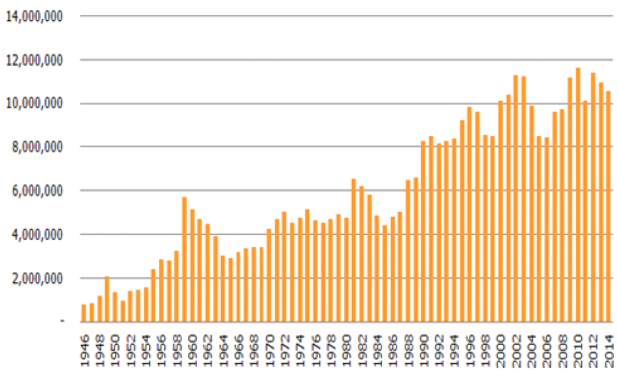


그림 1. 동아일보의 연도별 텍스트 규모

4

성신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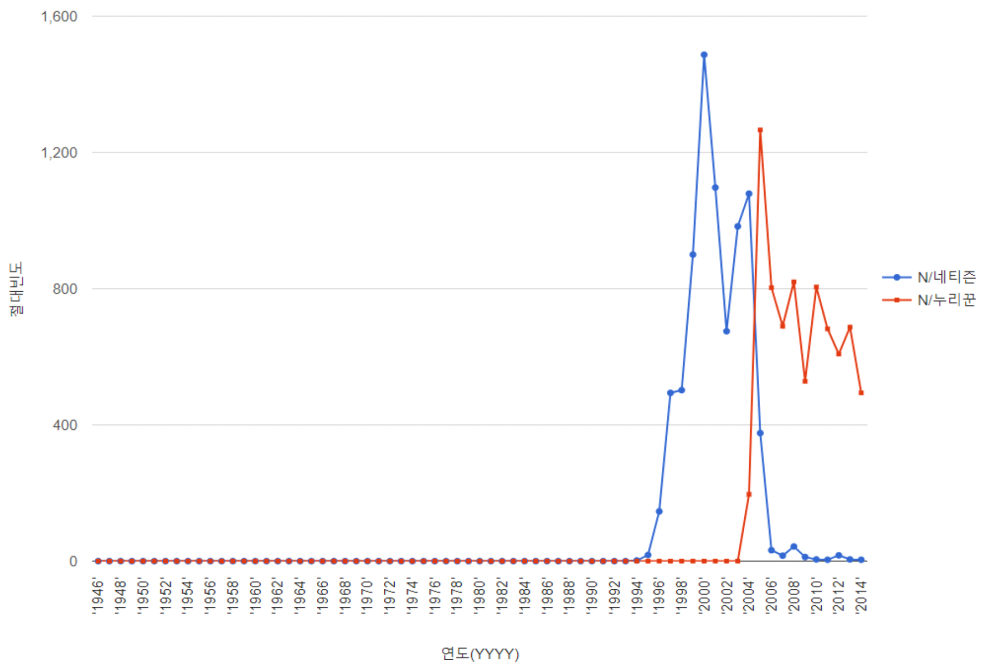
‘다듬은 말’
(말터 malteo.korean.go.kr)

- 총 408개의 순화어 목록
  - 기간: 2004. 7. 12.~2019. 7. 15.
    - ✓ 이 가운데 2013년 이전에 심의, 고시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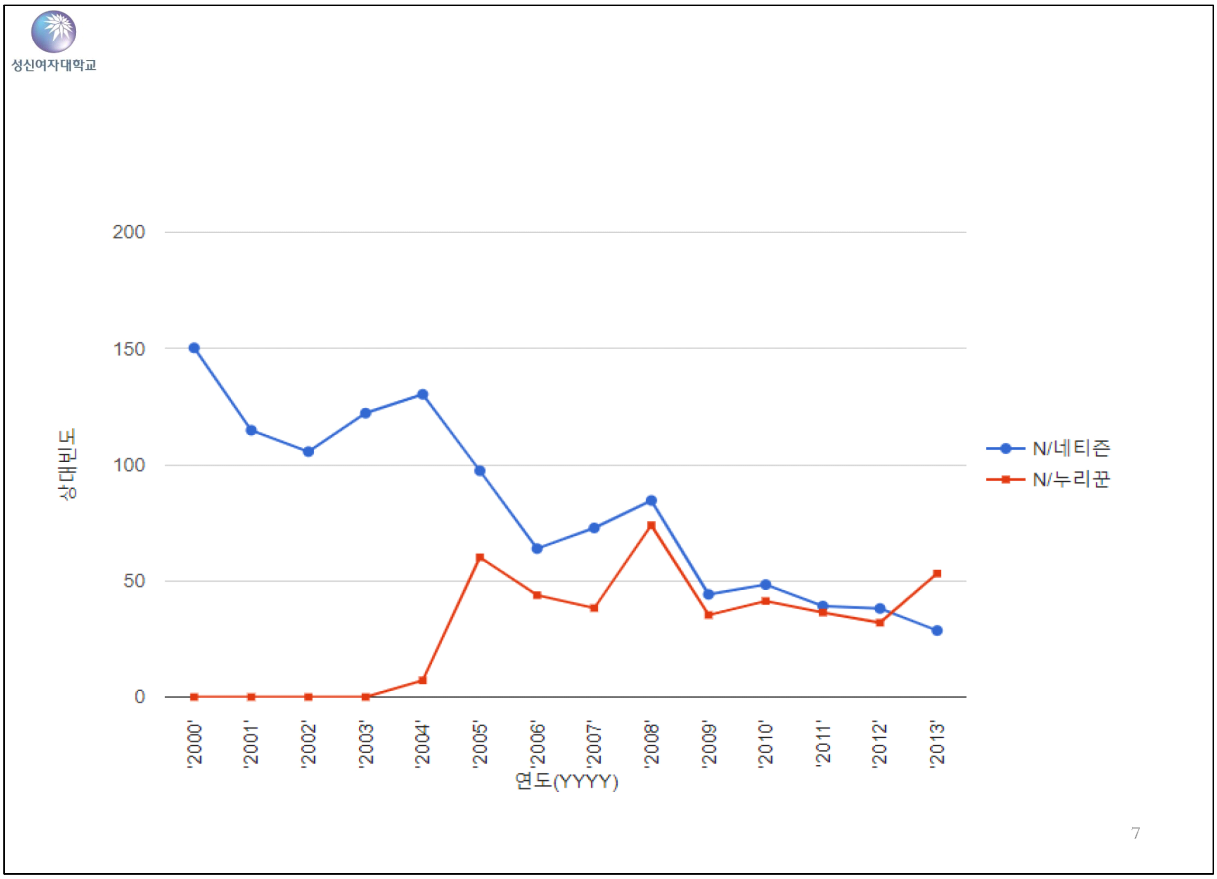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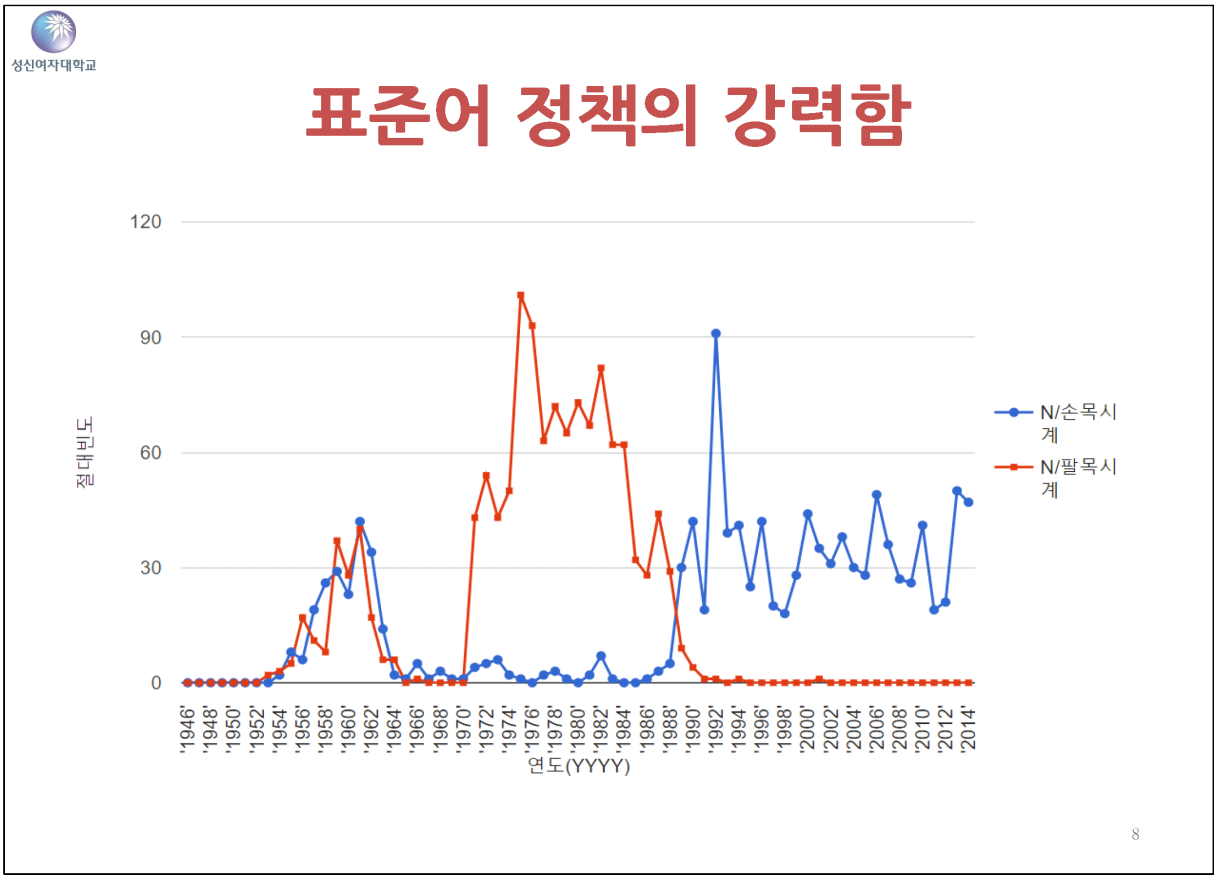
성신여자대학교

‘누리꾼’의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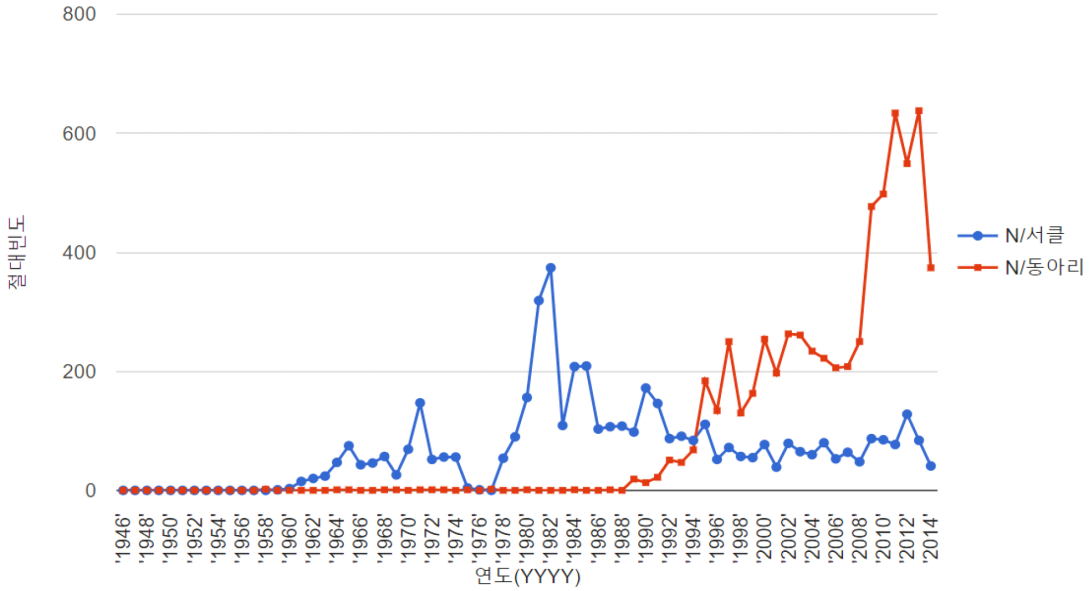
6


성신여자대학교
200
150
100
50
0
상대빈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도(YYYY)
N/네티즌
N/누리꾼
7


성신여자대학교
표준어 정책의 강력함
120
90
60
30
0
절대빈도
'1946'
'1948'
'1950'
'1952'
'1954'
'1956'
'1958'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연도(YYYY)
N/손목시계
N/팔목시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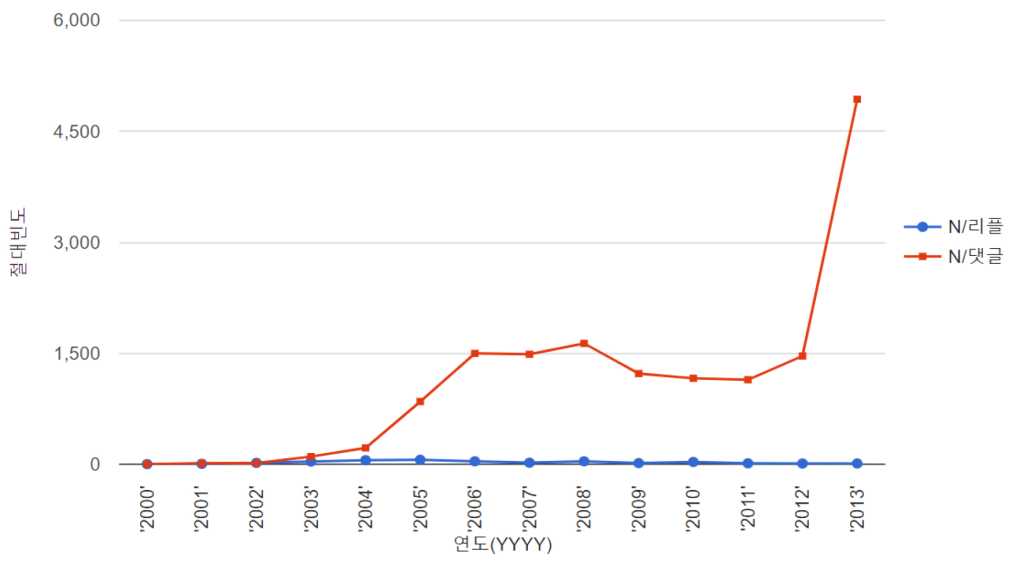
성신여자대학교

‘서클’과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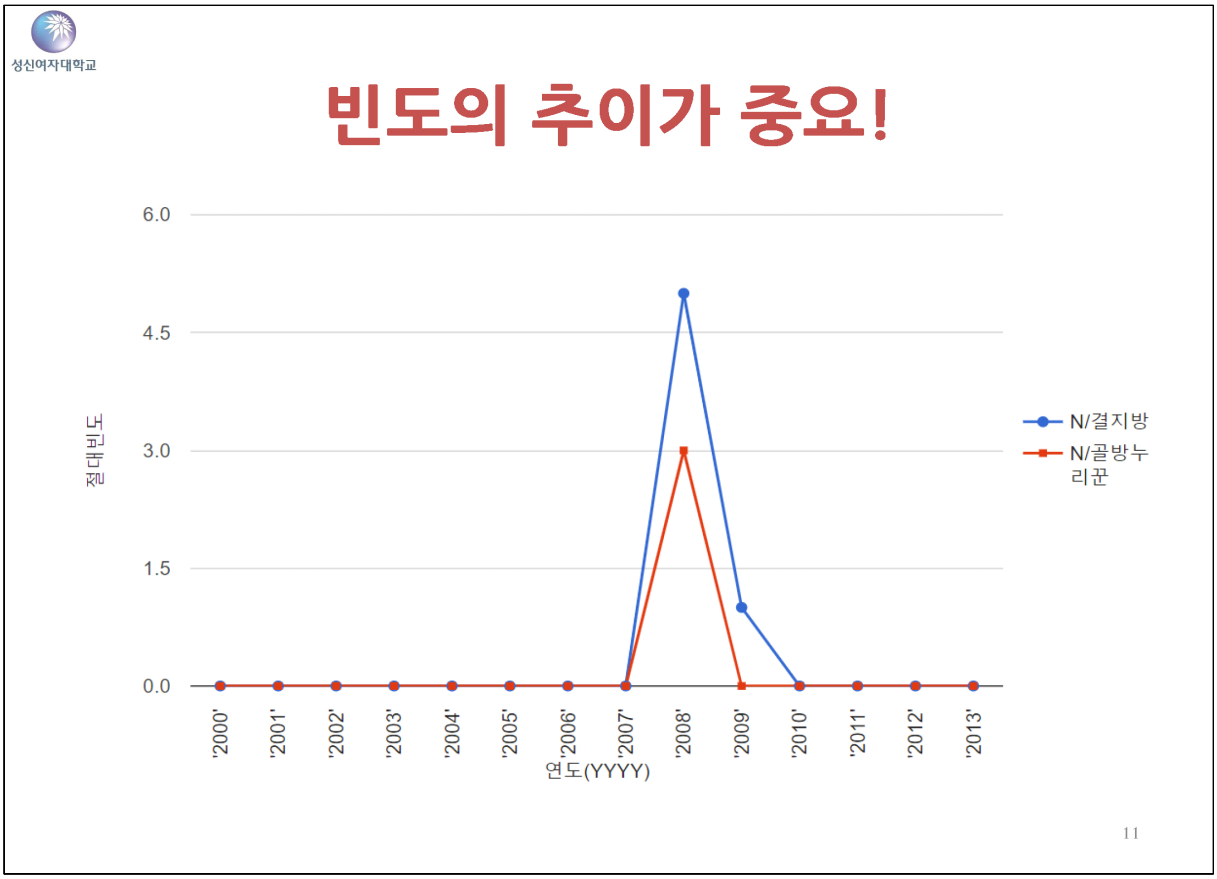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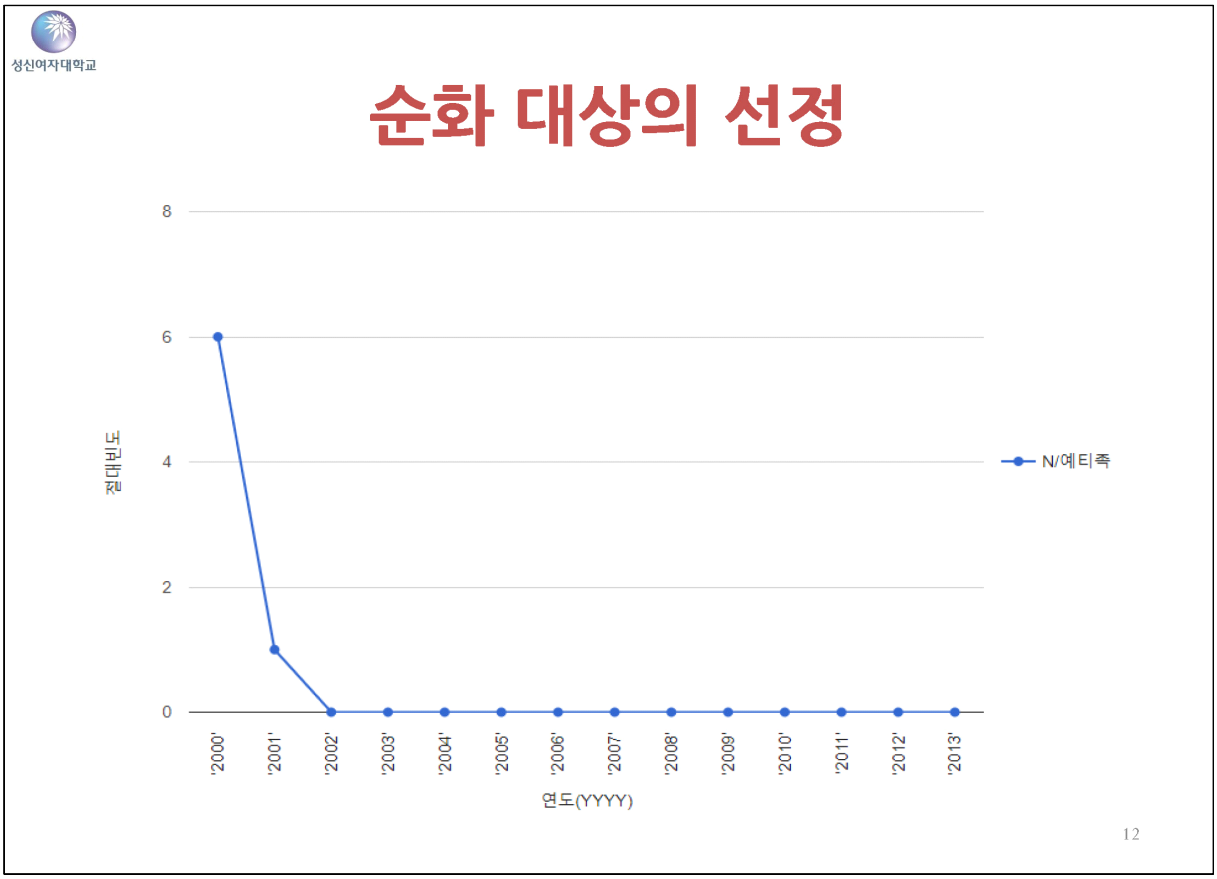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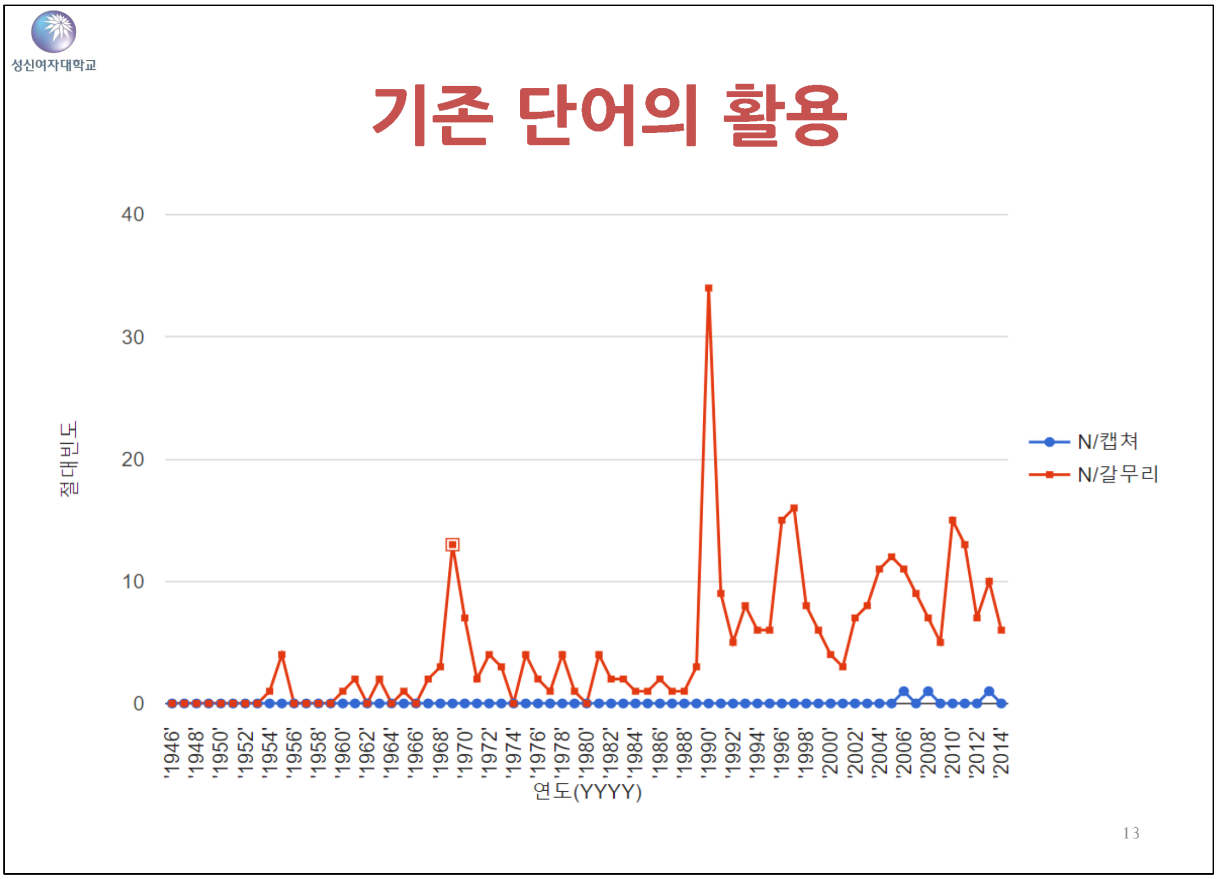
성신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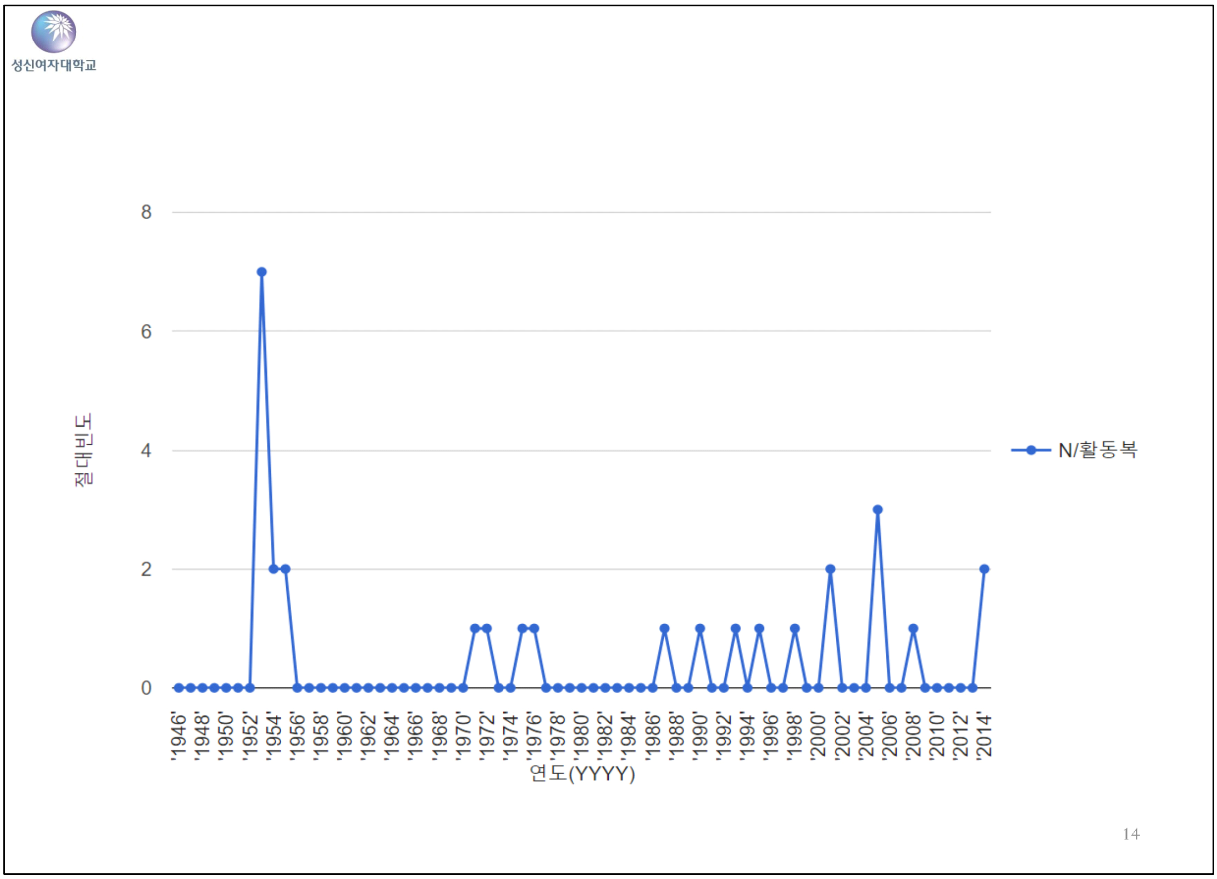


10


성신여자대학교
빈도의 추이가 중요!
6.0
4.5
3.0
1.5
0.0
절대빈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도(YYYY)
N/결지방
N/골방누리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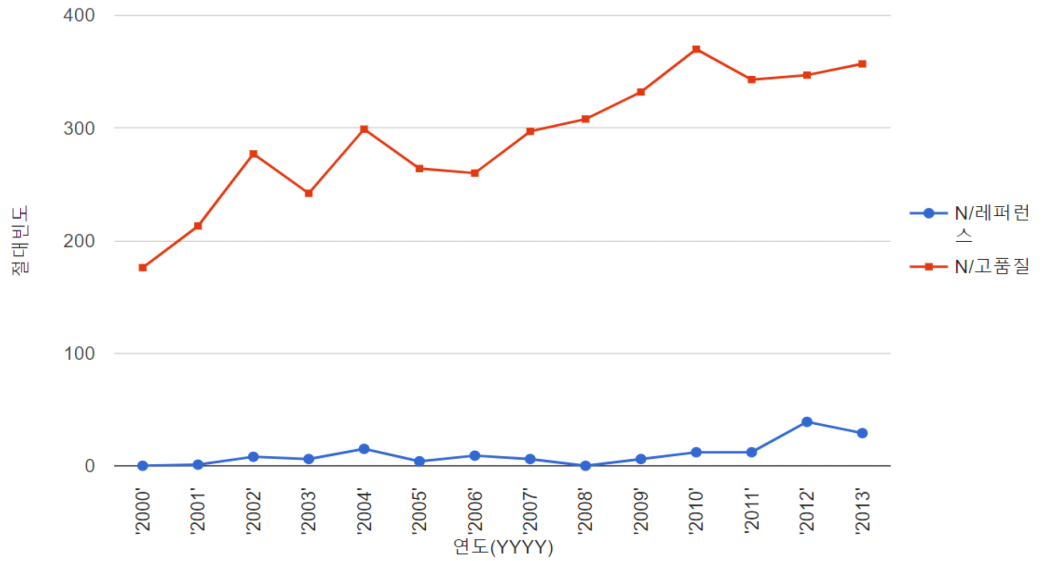

성신여자대학교
순화 대상의 선정
8
6
4
2
0
절대빈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도(YYYY)
N/예티족
12


성신여자대학교
기존 단어의 활용
40
30
20
10
0
절대빈도
'1946 '1948 '1950 '1952 '1954 '1956 '1958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연도(YYYY)
N/캡쳐
N/갈무리
13


성신여자대학교
8
6
4
2
0
절대빈도
'1946 '1948 '1950 '1952 '1954 '1956 '1958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연도(YYYY)
N/활동복
14

성신여자대학교

외래어와 순화어의 혼용



15

성신여자대학교

결론 및 제언

- 130개의 다듬은 말 중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순화어는
  - 15%에도 이르지 못함
  - 더구나 사용이 포착된 순화어 중에도 다른 영역, 화제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구(句) 차원의 순화는 정착하기 매우 어려운 항목임

16

"주제" 5

바우처 → 이용권

송부 → 보냄

국어 순화어의 공공성

정희창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스크린 도어 → 안전문

국어 순화의 공공성

정 희 창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국어 순화'는 국어 정책으로 타당한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국어 순화의 가치와 의미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현실의 고민을 담고 있다.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고안하고 언어 공동체에서 호응할 만한 순화어를 제시하려는 적지 않은 노력에도 국어 순화는 언어 공동체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어 순화가 국어 정책의 주요한 과제였다는 것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정책 수행의 목표, 대상, 관점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확실하기 때문이다.[1] 이러한 점은 비교적 초창기에 이루어진 국어 순화 정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 ㄱ. 정책의 목표: 국어의 외래적 요소를 제거하여 순수성 회복.
ㄴ. 정책의 대상: 언어 공동체
ㄷ. 정책의 관점: 일제 강점기의 언어적 잔재에서 회복.

이 시기의 국어 순화 정책은 '우리말 도로 찾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공동체에서 외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전의 순수한 상태를 회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전에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일본어 투의 용어를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 그러한 증거이다.[2]

문제는 이러한 결과를 국어 순화의 온전한 성과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라는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사회적인 추동력이 국어 순화에 작용했다면 자체에 동력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의 영향에서 벗어

1)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주요한 두 축으로 '어문 규범 정책'과 '국어 순화 정책'을 들 수 있을 만큼 그동안 국어 순화는 주요한 국어 정책이었다. 특히 광복 직후에는 국어 순화가 매우 강력한 국어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현식 2003:33) 참조.

2) '간즈메, 다마네기, 스메끼리, 자부동' 등과 같은 용어가 그러한 예이다.

난 이후부터 국어 순화가 사회적인 관심에서 급속하게 멀어지게 된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3)]

이는 국어 순화가 일본어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 주된 목표가 있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한 이후에 급속하게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광복 70년이 넘은 현재 국어 순화의 목표와 추진 방향이 초창기와 달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국어 순화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소명은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으므로 초창기 국어 순화의 시효 또한 소멸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재의 국어 순화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희창 2015:67)

(2)

	목적	방향
초창기	국어의 순수성 회복	일본어→고유어
현 재	의사소통 원활화	외국어→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문제는 이처럼 새로운 관점으로 국어 순화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했음에도 초창기의 국어 순화와 같은 정책의 추진력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언어 공동체의 호응도도 무척 낮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의 국어 순화에 대한 목표와 방향 설정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초창기의 국어 순화에 대한 열정이 특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다. 만약 후자라면 그러한 추진력과 호응을 다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초창기 국어 순화의 추진력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현재 그러한 추진력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어 순화는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에서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내적인 요인은 순화를 해야 하는 대상의 선정과 순화어의 결정 과정, 새롭게 제안하는 순화어, 그리고 순화어의 사용 영역을 들 수 있다. 순화 대상어의 선정이 순화의 목표와 방향성을 함의한다면 결정 과정은 의사소통의 준거를 마련하는 사회적인 합의 과정과 절차를, 순화어는 언어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직관을 보여 준다. 그리고 순화어의 사용 영역은 순화어가 존재하고 소통되는 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3) ㄱ. 순화 대상어: 국어 순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ㄴ. 순화 결정 과정: 공감할 수 있는 순화어를 찾는 절차는 무엇인가?

3) 일제 강점기 시절의 생활 일본어가 순화된 것과는 반대로 현재는 특정 분야의 일본어가 직접 유입되어 쓰이고 있다. '스시, 노바다야키, 사케'와 같은 음식 관련 용어가 그러한 예이다. 언어의 강제적인 사용에 대한 저항감이 자발적인 사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희창(2015)를 참조할 수 있다.

ㄷ. 순화어: 순화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적절한가? 또한 어휘 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ㄹ. 순화 영역: 순화어가 언어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작용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국어 순화의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춰 국어 순화의 의미에 대해 한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순화어'와 '순화어의 사용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것은 순화어가 기존의 어휘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어휘를 추가하여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화어의 이러한 의미는 특정한 영역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영역이 바로 공공 언어 부문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 언어 부문은 순화어가 의사소통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재의 국어 순화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어 순화의 정책적인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국어 순화를 추진할 만한 동력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먼저, 국어 순화의 목표와 방향성은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4) ㄱ. 간즈메(←간스메)[罐缶詰, かんづめ, can] <생활외> ➡ 통조림
ㄴ. 가제목[假題目] <행정> ➡ 임시 제목
ㄷ. 노블레스 오블리주[프.noblesse oblige] <언론> ➡ 지도층 의무

(4ㄱ)의 '간즈메'를 순화 대상어로 선정하는 것과 (4ㄴ)의 '가제목', (4ㄷ)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순화 대상어로 선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4] 2019년 현재의 관점에서 이들은 모두 순화 대상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간즈메'는 순화 대상어가 되기에는 이미 쓰이지 않게 된 말이고 '가제목'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한 순화어보다 더 널리 쓰이고 선호도가 높으므로 굳이 순화할 필요가 있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순화 대상어의 선정, 순화 절차, 순화어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논의 가운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이다. 이들은 국어 순화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의 시각을 보여 주

4) 이 발표문에서 제시하는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국립국어원(2003ㄱ)에 실린 것들이다.

고 있는 것들이다.[5)]

(5) ㄱ. 모든 외래어가 순화 대상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외래어의 경우 '정착도'를 기준으로 정착되지 않은 말을 순화 대상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용찬 2011)
ㄴ. 순화의 절차가 어느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안된 순화 방식 가운데 순화어의 높은 정착률을 보장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정희창 2015)
ㄷ. 순화어가 반드시 고유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성을 획득한 한자어나 외래어로 순화할 수 있다. (권재일 2005)

(5)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점은 국어 순화의 주요한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먼저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정착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순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순화어의 정착률을 보장하는 특별한 방법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순화어가 반드시 고유어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자어나 외래어로도 순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순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분야로 공공 부문이 유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순화 대상어의 정착도', '순화 방식의 보장성', '순화어의 사회성', '순화어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순화 대상어의 정착도는 정착도가 낮은 외래어를 순화 대상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 계층에서 널리 쓰이는 외래어가 정착도가 높다면 일부 계층에서만 쓰이는 외래어는 정착도가 낮은 말이다. 정착도가 낮은 말은 특히 언어 소외 계층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박용찬 2011) 이러한 점에서 정착도를 기준으로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는 것은 순화의 목표가 언어의 순수성 회복이 아닌 소통력이 높은 쉬운 말 찾기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지향하는 언어 공동체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순화 방식의 보장성은 구체적인 순화 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전문가 등 일부가 참여하는 순화 방식보다 일반 언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했다. 그렇지만 일반 언중이 참여하는 방식 또한 참여자의 비전문성과 낮은 참여도 등으로 기존 전문가 위주의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순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두 방식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순화 방식의 차이가 순화어의 정착률을 현저하게 높

5) 국어 순화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는 민현식(2003)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거나 낮춘다고 할 경험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언중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합리성은 보장하지만 순화어의 정착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공동체의 선택이 왜 '마개뽑이'가 아닌 '병따개'인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6]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이 적절한 순화 방식인지는 순화 대상어의 선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순화 대상어의 전문성 정도와 쓰임의 범위에 따라 좀 더 전문적인 언어와 일상적인 언어로 나누어지듯이 순화의 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순화 대상어와 순화 방식이 유기적인 관계에 놓이듯이 순화 대상어와 순화 방식에 대해 순화 또한 유기적인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일찍부터 언급되었는데 위의 '순화어의 사회성'은 순화 대상어, 순화 방식과의 관계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모두가 순화어가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이 또한 순화가 언어의 순수성 회복이 아닌 소통성 회복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7]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국어의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떠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6) ㄱ. 짬뽕 [ちゃんぽん] <식생활> ⇨ 초마면, 뒤섞기
ㄴ. 컨디션 [condition]<생활외> ⇨ 상태, 조건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다.
ㄷ. 커트라인 [cut line]<생활외> <언론> ➡ 한계선, 합격선 ¶커트라인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ㄹ.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생활외> ➡ 의사 전달/소통 ¶커뮤니케이션 및 가치 교환이 행해지는 장소이다.

(6)에서 '짬뽕, 컨디션'은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커트라인'과 '커뮤니케이션'은 순화어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언어 공동체의 직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짬뽕'의 순화 필요성이 '커뮤티케이션'보다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순화 대상어에 대해 언어 공동체에서 인식하는 두 가지 관점을 순화어의 수용성, 순화어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6) 국립국어연구원(2003ㄴ:10) 참조.
7) 순화어로 고유어 외에 한자어, 외래어도 가능하다는 인식은 비교적 일찍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어 순화에서 외래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자는 직접적인 주장은 아니라 해도 외래어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라면 외래어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희승(1947)에서도 외래어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해방 직후의 국어에 대한 여러 관점에 대해서는 최경봉(2017)을 참조할 수 있다.

(7) ㄱ. 순화어의 수용성: 언어 공동체의 의사소통에 활용할 만큼 순화어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
ㄴ. 순화어의 필요성: 언어 공동체에서 순화 대상어를 대체한 순화어를 사용하려는 정도.

순화어의 수용성과 필요성은 순화 대상어, 순화 방식, 순화어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시 가능한 순화어의 수용성과 필요성이 현저하게 낮다면, 그리고 공감할 만한 순화어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순화 대상어의 선정이 적절한지 의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8)]

그렇다면 순화 대상어의 선정과 순화 방식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지금까지 시도된 국어 순화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8) ㄱ. 전문가 주도 방식: 국립국어원을 비롯한 전문가가 주도하여 순화어를 결정.
ㄴ. 누리꾼 주도 방식: '말터'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누리꾼이 참여하여 순화어를 결정.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 비해 누리꾼이 주도하는 방식은 다수의 언중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9)] 그런데 직접 참여하는 누리꾼의 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일부 적극 참여자를 중심으로 순화어가 결정될 경우 이러한 방식 또한 언중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10)]

그러므로 순화 방식의 효과는 절차상의 논리보다는 결정된 순화어의 수용성과 필요성으로 측정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9) ㄱ. 웰빙(well-being) ⇨ 참살이
ㄴ. 스크린 도어(screen door) ⇨ 안전문
ㄷ. 스팸 메일(spam mail) ⇨ 쓰레기편지
ㄹ. 올인(all-in) ⇨ 다걸기

위의 예들은 '말터'에서 초창기에 제시했던 순화 대상어와 순화 결과이다. 이들은 기존의 순화어에 비해 언어 공동체의 수용성과 필요성이 높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화어의 수용성과 필요성은 아래의 예에서 급속하게 감소한다.[11)]

8) 순화어의 수용성과 필요성은 결과적으로 박용찬(2011)의 '정착도'로 측정된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9) 누리꾼 중심의 국어 순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용찬(2010, 2011)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10) 처음에 누리꾼이 순화어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누리꾼이 제안한 순화어를 '우리말다듬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순화 방식이 보완된 것에서 이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11) '말터'에서 (9)의 예들은 '1~5번째', (10)의 예들은 '9~15번째'에 순화가 된 것들이다.

(10) ㄱ. 무빙워크(moving walk) ⇨ 자동길
ㄴ. 슬로푸드(slow food) ⇨ 여유식
ㄷ. 유비쿼터스(ubiquitous) ⇨ 두루누리
ㄹ. 퀵서비스(quick service) ⇨ 늘찬배달
ㅁ. 로밍(roaming) ⇨ 어울통신

언어 현실에서 (9)에 비해 (10)의 예들은 정착도가 무척 낮다고 여겨진다. '무빙워크', '퀵서비스'가 '자동길', '늘찬배달'로 대체되어 쓰이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늘찬배달'은 '번개배달'보다도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유어 '늘차다'의 의미를 아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화어의 소통성이 떨어지는 것은 순화 대상어의 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순화 대상어가 자리를 잡거나 순화어로는 완벽하게 의미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감도가 높은 순화어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순화어를 제시하더라도 호응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를 대체할 순화어를 찾는 것은 무척 어렵다. '늘찬배달'이 의미상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널리 쓰이지 못한 것은 퀵서비스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어떤 순화어를 제시해도 언중의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슬로푸드'와 '여유식'도 마찬가지다. 순화 대상어의 정착도가 높을수록 순화어가 선택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10)을 보면 순화어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여부와 순화어의 정착률과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순화어의 어종이 순화어의 공감성과 필요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순화가 실패하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하다. 뒤집어 말하면 순화어가 정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말이다.

(11) ㄱ. 미션(mission) ⇨ 목표/목적, 임무/과업/의무, 중요한 일. 중요 임무
ㄴ. 콘텐츠(contents) ⇨ 꾸림정보
ㄷ. 스타일리스트(stylist) ⇨ 맵시가꿈이
ㄹ. 포스트잇(Post-it) ⇨ 붙임쪽지

(11)은 순화어를 제시하기 어려운 순서로 순화 대상어를 나열한 것이다. '미션'이 가장 어렵고 '포스트잇'이 가장 수월하다. (11ㄱ)의 '미션'은 맥락에 따른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순화어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11ㄴ)의 '콘텐츠'도 비슷하다. 이들은 단어 자체의 어휘적 의미보다는 맥락적인 해석에 따른 의미로 주로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포괄하는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채 외국어로서 그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순화 대상어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순화 대상어가 순화어로 바뀌는 것만으로 맥락의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추상적인 개념의 어휘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3.

지금까지 '순화 대상어, 순화 방식, 순화어'는 '순화'의 기본 요소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모색되었지만 어느 것도 순화의 성공률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어떤 순화 대상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순화어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순화어에 대한 언어 공동체의 공감도가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순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순화 대상어만을 선정하는 것은 순화의 본질에 맞지 않는 태도이다.

따라서 순화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순화의 요소인 순화어가 사용되는 '영역'과 관련되는 것이다.

(12) 국어 순화가 새롭게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분야는 공공 언어 부문일 가능성이 높다. 수혜 당사자가 광범위하고 시행의 효과가 크며, 강제적으로 시행할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정희창 2015)

(12)는 '순화어의 공공성'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5)에서 언급한 '순화 대상어의 정착도', '순화 방식의 보장성', '순화어의 사회성'이 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순화어의 공공성'은 순화가 지향해야 할 영역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국어 순화가 과거와 같은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국어 순화가 효과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영역은 공공 언어와 같이 공공성이 높은 분야이며 이러한 영역으로 국어 순화를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공공 언어 분야로 국어 순화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뒷받침될 수 있다. 첫째, 공공 언어는 생산자와 수혜자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순화 대상어의 선정 기준이 비교적 명백하고 그에 따른 공감도 높은 순화어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미 유통되는 기존 용어를 순화하는 것 외에 처음부터 소통성 높은 용어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책 용어 등을 제시할 때 국어 순화의 기준을 적용하면 선제

적으로 국어 순화를 적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12] 또한 이 경우에는 이미 제안된 용어를 순화하는 것에 비해 정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정착도가 높은 말이라도 언어의 공공성은 국어 순화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쓰이더라도 소통성이 현저하게 낮은 말이라면 국어 순화를 통해 좀 더 소통성 높은 말로 대체할 명분과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 언어의 낮은 소통성이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현대경제연구원 2010, 정희창 2015)

(13) ㄱ. 소통성 낮은 정책명: 맘프러너[13], 마이크로크레딧, 바우처 등
ㄴ. 시간 비용: 114억 원
ㄷ. 산출 근거: 어려운 정책명을 접한 국민 수 × 일반 국민이 어려운 용어를 접한 1년 평균 횟수(5.93개) × 어려운 용어로 인해 들이는 추가 평균 소요 시간(30초), 일반 국민 시간당 평균 노동 임금(12,331원)

소통력이 낮은 공공 언어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14]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공공 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 언어는 언어 생산자의 관점에서 국어 순화의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새로운 용어를 제시할 때 순화의 기준에 맞추어 소통성과 필요성이 충족된 용어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용어를 순화하는 대신 국어 순화를 할 필요가 없는 용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외국어 투의 정책 용어 등은 당연하게 이 과정에서 걸러지게 된다.

공공 언어의 이러한 특성은 순화어의 정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순화어의 제시 방식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 ㄱ. 레스토랑 「명」 서양의 음식점. ‘식당(食堂)’, ‘양식당(洋食堂)’으로 순화.
ㄴ. 바겐세일 「명」 기간을 통하여 특별히 정가보다 싸게 파는 일. ‘싸게 팔기’, ‘할인 판매’로 순화.
ㄷ. 다마 「명」 「1」 ‘구슬’, ‘알’로 순화. 「2」 ‘전구(電球)’로 순화.

12) 모든 공공 언어가 이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자연 발생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공 언어의 경우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분야에 비해 특정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13) 맘프러너: ‘엄마(Mom)’와 ‘기업가(Entrepreneur)’의 합성어
14) ‘연도별 비용 절감액=시간 비용 114억 원×정책 추진에 따른 억제도 예측치’이다. 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첫해에 34억 원, 1년 후 68억 원, 그 후 연 102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현대경제연구원(2010) 참조.

(14)는 이전에 국어사전에 제시되었던 순화 정보로 ‘고시’되었던 순화 정보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순화 정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언어 공동체의 언어 현실을 반영했다기보다는 고시되었다는 법적인 준거에 따라 순화어를 적용했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러한 순화 정보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존의 순화 정보가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사전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국어 순화 정보는 “우리말샘”으로 옮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 ㄱ. 레스토랑(restaurant)「명사」서양 음식을 파는 음식점.

[규범 정보]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레스토랑’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식당’, ‘양식당’을 쓰라고 되어 있다.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레스토랑’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식당’을 쓰라고 되어 있다.

ㄴ. 바겐-세일(bargain sale)「명사」기간을 정하여 특별히 정가보다 싸게 파는 일.

[규범 정보]

- 순화(패션 디자인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27호, 1999년 10월 11일)) ‘바겐세일’, ‘바겐’ 대신 순화한 용어 ‘싸게 팔기’, ‘할인 판매’만 쓰라고 되어 있다.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바겐세일’ 대신 순화한 용어 ‘싸게팔기’, ‘할인 판매’만 쓰라고 되어 있다.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바겐세일’ 대신 순화한 용어 ‘싸게 팔기’만 쓰라고 되어 있다.

이는 수록 사전이 변경되었을 뿐 이전의 처리 방식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사전의 변경이 국어 순화를 더 이상 규범적인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동안 국어 순화는 성격상으로 규범적인 면이 있지만 순화어가 제시되는 방식이나 적용 범위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국어사전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규범적인 “표준국어대사전”보다 “우리말샘”이 국어 순화 정보를 반영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수록하는 사전의 단순한 변경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말샘”에 제시되어 있는 국어 순화 정보는 출처를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언어와 관련된 순화 정보를 “우리말샘”을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의 뜻풀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순화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이다.

(16) 메세나(mécénat)「명사」『예체능 일반』 기업이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따위의 분야를 지원하는 활동.

☞ 문예후원, 이렇게 쓰세요(국립국어원 2011)

ㄱ. 기업들이 최근 사옥 안팎에서 일반 시민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나 전시회를 많이 열고 있다.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의 문예후원(메세나) 활동의 혜택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ㄴ. 메디치는 예술·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이탈리아의 사업가로, 문예후원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ㄷ. 문예후원은 기업과 예술의 만남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다.

ㄹ. 문예후원(메세나)을 통한 문화 대중화 지원 정책.

(17) 미션(mission)「명사」『사회 일반』 조직에서 중요하게 맡겨진 목표나 과제.

[규범 정보]

•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미션’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무’, ‘중요 임무’를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임무(미션), 목표(미션), 이렇게 쓰세요

ㄱ.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는 자신의 임무(미션)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ㄴ. 전력 극대화를 위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동계 훈련 목표(미션),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 없애기

이처럼 국어 순화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구체적인 뜻풀이를 바탕으로 문맥과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그동안 순화 대상어, 순화 방식, 순화어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방법론적 반성은 국어 순화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으로 이어져 왔다. 국어 순화가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은 낡아 보이지만 이 또한 국어 순화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국어 순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논리적인 장점과 일관성이 국어 순화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장벽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 순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공공 영역의 언어 사용에 대해 국어 순화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순화 대상어, 순화 방식, 순화 결과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순화어가 사용되는 영역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고 이제 공공 영역에 그러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 분야의 언어는 언어 공동체가 수혜자가 되며 생산자가 명백하다는 특징이 있다. 생산자를 기준으로 생산 단계에서 국어 순화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여기에서 비롯한다. 이는 이미 만들어진 언어를 순화하거나 새로운 조어가 이루어질 때 순화어의 정착도를 높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과거와 같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통제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정책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실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 또한 공감을 얻기 어렵다. 국어 순화를 빗대어 보면 전자는 초창기의 국어 순화 정책과, 후자는 최근의 국어 순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 국어의 순수성 회복은 강력하고 일관된 추진력을 발휘할 만한 목표이지만 이미 지나간 시대의 논리일 뿐이다. 이와 달리 소통성을 강화하는 것은 공감할 수 있고 현대 사회에 적합한 목표이지만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국어 순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러한 정책이 의미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듯하다.

▌참고 문헌

강신항(1988), “한자어 사용의 현실과 처리 문제”, 『국어생활』(국어연구소) 14호. 14-24.

강신항(2004), “외래어가 국어에 끼친 공과”,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14권2호. 23-57.

강인선(1988), “일본의 국어 순화 정책”, 『국어생활』(국어연구소) 14호. 108-114.

고성환(2011),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21권2호. 5-18.

국립국어연구원(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2003ㄱ), 『국어 순화 자료 합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연구원(2003ㄴ), 『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대회』,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2009),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1), 『요긴하게 쓸 만한 다듬은 말 61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3),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및 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4),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 지원 및 순화어 정비 연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현대경제연구원(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국립국어원.

권재일(2005), “국어 순화에 대하여”(국어 순화 좌담회),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15-1. 국립국어원

김민수(1988), “국어 순화 운동에 대하여”, 『국어생활』(국어연구소) 14호. 4-13.

김민수(1975),『국어 정책론』. 탑출판사.

김석득(1979), “국어 순화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국어의 순화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34.

김억(1931), “언어의 순수를 위하여”. 『동아일보』. 1931. 3. 29.~1931. 4. 4.

김하수(2011), “국어 순화의 비판적 대안”.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21권2호. 123-135.

문교부(1948), 『우리말 도로 찾기』.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문교부(195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잦기 조사』. 문교부.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 언어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국립국어원.

민현식(2003), “국어 순화의 국어학적 연구”,『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33-212.

박용찬(2010), “국어 순화 논의의 성과와 한계”,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20권4호. 127-145.

박용찬(2011), “누리꾼 참여형 국어 순화 방식의 성과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21권2호. 19-59.

법제처(20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법제처.

서정수(1988), “서구 외국말의 문제”, 『국어생활』(국어연구소) 14호. 35-45.

송 민(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국어연구소) 14호. 25-34.

송철의(1998), “외래어의 순화 방안과 수용 대책”.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8권2호. 21-40.

이동석(2011), “국어 순화 결과 분석 및 방법론 제언”, 『새국어생활』(국립국어원) 21권2호. 61-84.

이희승(1947), “국어 교육의 당면 문제”, 『조선교육』1-1.
정재도(1999), 『국어사전 바로잡기』. 한글학회 한글재단.
정재환(2012), “해방 후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의 내용과 성과”, 『한글』(한글학회) 296호. 151-196.
정희창(2015), “외래어 순화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어학』(한국어학회) 67. 89-104.
최경봉(2017), “해방 후 국어 의식의 형성과 전개”, 『한국어학』(한국어학회) 74. 199-232.
최용기 · 민현식 · 이정복(2003),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최현배(1953),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정음사.
한국교열기자회(1994), 『신문 · 방송 보도 용어 순화 자료집』. 한국교열기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79), 『국어의 순화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주제" 6

바우처 → 이용권

송부 → 보냄

말 다듬기의 대상

: 공공분야 어려운 용어를 중심으로

조진수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최선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구본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스크린 도어 → 안전문

말다듬기의 대상

- 공공 분야 어려운 용어를 중심으로

발표자: 조진수(전남대), 최선희(서울대), 구본관(서울대)

* 본 발표는 2019년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으로 수행한 <어려운 공공 용어 진단 기준 마련(연구 책임자:구본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차 례

말다듬기의 대상 - 공공 분야 어려운 용어를 중심으로

01 말다듬기 대상 선정의 몇 가지 전제

02 '난도(難度)' 개념의 복잡성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04 말다듬기 대상,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01 말다듬기 대상 선정의 몇 가지 전제

▌전제 1

'순화 차원의 말다듬기'와 '난도 차원의 말다듬기'의 개념적 구분

예

순화 차원의 말다듬기 대상	난도 차원의 말다듬기 대상
홈페이지 드론 가불 익일 ⋮	핀테크 해커톤 ODA 계상 ⋮

→ 실제 사례에서는 두 측면 모두가 고려된 경우가 많지만, '순화 차원의 말다듬기'와 '난도 차원의 말다듬기'는 개념적으로 구분됨.

→ 이 발표에서는 **'난도 차원의 말다듬기'**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함.

01 말다듬기 대상 선정의 몇 가지 전제

▌전제 2

"난도 차원의 말다듬기는 사용역(register)을 전제한 개념이다."

예

- **계상(計上)** : 일반 국민 이해도 2.24(5점 리커트 척도 기준, 이하 동일)
- **핀테크** : 일반 국민 이해도 2.91

→ 공공 분야의 글에서 '계상'과 '핀테크'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상'과 '핀테크'를 어떤 경우에도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은 별개의 주장이다.

→ 이 발표에서는 공공 분야의 글(예: 중앙행정기관 보도 자료)에 사용된 용어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함.

02 '난도(難度)' 개념의 복잡성

○ 난도를 추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예

➲ 다음 용어는 이해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느 정도 쉽고 어느 정도 어려울까?

용 어	예 문
As is - To be	As - Is / To - Be 기획방식 / '先 기술 ⇒ 後 목표'의 로드맵 방식 / '先 목표 ⇒ 後 기술'의 도전성 강화 -○○부 2019년 보도자료
MOU	○○은 ○○시청에서 '우수 수산물 소비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R&D	○○동 일반 공업지역이 '융복합형 **R&D** 혁신 허브'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거버넌스	먹거리 관련 지역조직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계상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함에 따라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
규제 샌드박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부 2018년 보도자료
리플릿	**리플릿**은 알기 쉽게 구성되었다.
메이커 교육	**메이커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국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바우처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브라운 백 미팅	○○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브라운 백 미팅**'을 가졌다
연구 개발	○○○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연구 개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워크숍	○○시, '2019 비영리민간단체 소통 **워크숍**' 개최
원스톱	○○군,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 '대통령 기관표창' 확정
인포그래픽	이번 **인포그래픽**에서는 ○○ 감독 부임 전후 ○○의 리그 평균 승률에 대해 조명해 봤습니다.

02 '난도(難度)' 개념의 복잡성

○ 어려움을 느끼는 주체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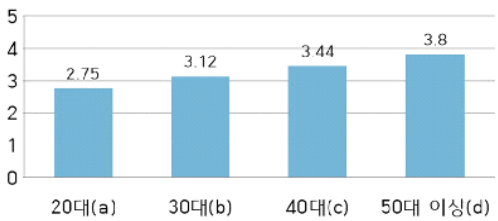
(1) "누구에게 어려운 것인가?"

(2) "누구에게 어려워야 어려운 용어로 판정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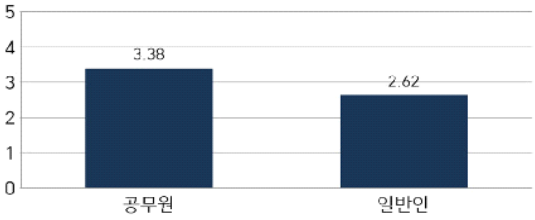
- 연령, 성별, 학력, 지역, 직업(군) 등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다름.
- 사회언어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외에 개인차도 존재.
-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다름.

예

'민자'의 연령별 이해도



'리플릿'의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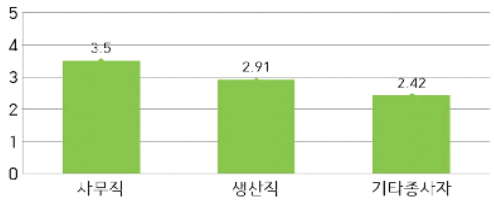


02 '난도(難度)' 개념의 복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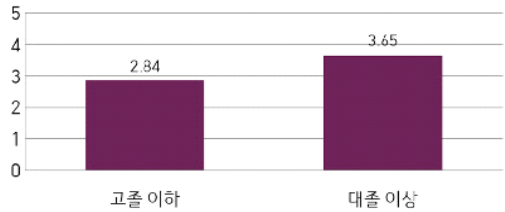
○ 어려움을 느끼는 주체 측면

예

'R&D'의 직업(군) 이해도



'산학 협력'의 학력 이해도



02 '난도(難度)' 개념의 복잡성

○ 어려움의 원인 측면

(1) 개념 자체의 복잡성과 난해함

- **MICE 산업** : 일반 국민 이해도 2.05
- **밸류 체인** : 일반 국민 이해도 2.51

(2) 개념을 언어로 표상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어려움

- **브라운 백 미팅** : 일반 국민 이해도 1.90
- **해커톤** : 일반 국민 이해도 1.96

(3) 사용된 언어 자체의 어려움

- **HMR** : 일반 국민 이해도 2.05
- **퍼실리테이터** : 일반 국민 이해도 2.05

02 '난도(難度)' 개념의 복잡성

○ 어려움의 판단 주체 측면

(1) 잘 모르는 용어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

(2) 대규모 조사에서 서술형 평가의 제약

예

공공용어	문1. ○○○ 용어를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음 ② ③ 보통 ④ ⑤ 아주 많음	문2. ○○○ 용어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① 전혀 이해 못함 ② ③ 보통 ④ ⑤ 매우 잘 이해함
혁신 창업 클러스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해커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PPP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핫라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하방 리스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핀테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R	① ② ③ ① ⑤	① ② ③ ① ⑤

02 '난도(難度)' 개념의 복잡성

○ 어려움의 판단 맥락

(1) 용어만 단독으로 제시했을 때의 난도 예 나지

(2)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의 경우 원어를 병기하여 제시했을 때의 난도 예 나지(裸地)

(3) 실제 사용 맥락 속에서 용어를 제시했을 때의 난도

예

올해 폭염, 산림 제외 모든 인프라에서 열스트레스 높아 ○ ○ 연구진은 측정 지역 내의 산림, 논, 수변, 공원잔디밭,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차장, 나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유형에 따라 '열스트레스' 지표를 분석했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보도 자료 중에서)

공공용어	① 이 용어를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② 이 용어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③ 이 용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④ 이 용어가 공공언어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지	1.79	1.10	1.69	1.04	1.56	0.98	2.12	1.04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직접 측정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난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모든 공공 용어를 대상으로 삼아 국민들이 그 뜻을 말하거나 쓰게 한 후에 채점을 하여 이해도 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난도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 모든 공공 용어를 조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2) 대규모 조사에서 서술형으로 용어의 뜻을 쓰게 하기도 어렵다.

간접 측정

만약, 공공 용어의 어려움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직접 측정을 하지 않고도 공공 용어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용어의 어려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중 무엇이 영향 요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1) 사람들의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여
공공용어의 어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확인하기

[사람들의 직관적 판단 결과]

-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서 대상으로 삼은 보도자료 720건 다시 분석
- 기존 연구에서 시민 평가단이 어렵다고 인식한 용어 목록 활용
-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공공용어 전체를 추출한 후, 어렵다고 인식된 공공용어와 그렇지 않은 공공용어를 구분함.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1) 사람들의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여 공공용어의 어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확인하기

2018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사업에서 시민 평가단이 선정한 어려운 단어 또는 구(일부)

순서	출현 빈도 (건)	단어 개수	한자어	외래어	로마자
1	9	1			TF
2	6	2	제고	플랫폼	
3	5	1		킨셜닝	
4	4	5	애로사항, 허도급	모니터링	ICT, R&D
5	3	11	개소, 물납, 유휴, 즉심,	멘토링, 블록체인, 세션, 스니트업, 인프라, 컨트롤니워	O2O
6	2	40	계도, 계효업무지침, 교부, 도성보호, 반대급부, 부징당입자, 성비위, 수예, 시달, 시보, 애로, 양묘장, 이행, 임계, 재가복지, 저감, 적시성, 준공, 추심, 피복,	드론, 등록센서스, 로드맵, 매뉴얼, 밀리시버드, 벤치마킹, 빅데이터, 샌드박스, 솔루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인센티브, 컨퍼런스, 클러스터, 패러다임, 팸투어, 풀(Pool), 핀테그	BI, PG
7	1	469	가덩 조서, 가시시건, 가산금, 가설교량, 간이과세서, 간이하세, 갈음, 감리, 감지유긴, 무설, 개문출발방지장치, 개발행위허가, 개보수딘, 개인성보 자기결성권, 개선되다, 개호비, 거짐, 거즐금, 거줄물, 건선픈질, 격닙건물, 결구체소, 경간, 경과실, 경기민감업종, 경상관리, 계고장, 계시수업, 계도시간,	가이드라인, 가이드북, 갈리피고스규세, 거버년스, 골든타임, 광재(스래그), 규제샌드박스, 그루매니저, 그룹홈, 글루타치온 맥옥주사 쇼크, 네거티브 리스트, 네거티브원칙, 네거디브화,	%p, ARS, As is - To be, bottom-up, C4, CMA-MMW, Core Working Time, D2스타드업 펙토리, DB, E1~E7, FEALAC Youth, GCC, GMO식푼, GPS, Ground GPS,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1) 사람들의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여 공공용어의 어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확인하기

용어의 난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활용하여 각 용어에 범주 부여

예상 요인

차원 구분	분류 기준		
용어 자체 요인	용어의 형식 측면	용어의 구성 요소	어휘 난도
			어종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
		구성 요소 간 결합 방식	합성 또는 구 구조
			파생
			축약
			혼성
			로마자 약어
			혼종
			⋮
용어 인식 주체 요인	용어의 내용 측면	용어의 소속 분야	행정 용어
			정책 용어
	용어에 익숙한 정도 용어 이해 정도 용어 사용 정도	낯섦 ---------- 익숙함 전혀 이해하지 못함 ---- 정확히 이해함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매우 자주 사용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수용도)	매우 부적절함 -------- 매우 적절함	

예시

항목	구성 요소				결합 방식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여부[f]	미등재 요소
					조어 방식 기준				
	포함 어종[a]	포함 한자 난도[b]	해당 한자	교육용 한자 1,800자 외 한자 포함 여부	해당 한자	표기 방식 (로마자 약어 또는 로마자 단어 포함 여부)[c]	결합 방식[d]	어종 기준[e]	
규제 샌드박스	한자어+외래어 및 외국어	3	制	0		모두 미포함	합성 또는 구 구조	1	1	샌드박스
K-Move 스쿨	외래어 및 외국어					모두 포함	합성 또는 구 구조	0	1	K-Move 스쿨
시니어 엘스케어	외래어 및 외국어					모두 미포함	합성 또는 구 구조	0	1	시니어, 케어
핀테크	외래어 및 외국어					모두 미포함	혼성	0	1	핀테크
간이과세지	한자어	4	易, 稅	0		모두 미포함	합성 또는 구 구조	0	0	
지재권	한자어	4	知	0		모두 미포함	축약	0	1	
SWC	외래어 및 외국어					로마자 약어만 포함	로마자 약어	0	1	SWC
⋮	⋮	⋮				⋮				

범주 부여 방식

- **포함 어종(a)**

  포함 어종이 둘 이상일 경우 결합 순서에 상관없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 순으로 표기.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및 외국어', '고유어+한자어', '고유어+외래어 및 외국어', '한자어+외래어 및 외국어'와 같은 방식으로 범주 부여 후 가변수를 사용하여 코딩.

- **포함 한자 난도(b)**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민현식 외, 2003:81-104)[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용어에 포함된 한자 중 가장 난도가 높은 한자의 등급을 부여함. 민현식 외(2003:81-104)에서 제안한 1~7등급에 해당하는 한자의 경우 해당 등급을 부여하되, 1~7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의 경우 '8'을 부여함. 단, 한자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없음.

- **표기 방식(c)**

  '로마자 약어와 로마자 단어가 모두 포함된 경우', '로마자 약어는 포함되고 로마자 단어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 '로마자 단어는 포함되고 로마자 약어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 '로마자 약어와 로마자 단어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각각을 '모두 포함', '로마자 약어만 포함', '로마자 단어만 포함', '모두 미포함'으로 범주 부여 후 가변수를 사용하여 코딩.

- **결합 방식(d)** 합성 또는 구 구조, 파생, 축약, 혼성 등의 범주를 부여.

- **어종 기준(e)** 혼종=1, 혼종 아님=0

-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여부(f)** 유=1, 무=0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1) 사람들의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여 공공용어의 어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확인하기

- 범주 부여 결과를 바탕으로 어종, 포함 한자 난도, 결합 방식,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여부 등의 요인이 공공용어의 어려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확인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어종, 포함 한자 난도, 결합 방식,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여부는 독립 변인이 되고 '어려움/어렵지 않음'은 종속 변인이 됨.

》 어종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변 인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	2.723	.352	59.893	1	.000	15.220
고유어+한자어 여부	-.798	.359	4.928	1	.026	.450
고유어+한자어+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	-21.267	20096.485	.000	1	.999	.000
상수항	.064	.076	.701	1	.405	1.066

-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 '고유어+한자어 여부'의 두 개 변인이 유의수준 .001,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Nagelkerke의 R^2=.189).
-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의 경우 Exp(B)가 1보다 크므로 승산(odds)에 대해 정적 효과
-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효과 크기는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의 BIC 값이 53.05로 나타나,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의 효과 크기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됨.
- 단, '하이패스', '홈택스', '바이오헬스', 'DMZ' 등의 몇몇 용어들은 '외래어 및 외국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공공용어로 지적되지 않았음. **높은 인지도**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

로마자 포함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변인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로마자 약어, 로마자 단어) 모두 미포함	-2.937	1.023	8.244	1	.004	.053
상수항	3.829	1.011	14.347	1	.000	46.000

- '(로마자 약어, 로마자 단어) 모두 미포함'의 한 개 변인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Nagelkerke의 R^2=.125).
- '(로마자 약어, 로마자 단어) 모두 미포함'의 경우 Exp(B)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승산(odds)에 대해 부적 효과
-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효과 크기는 '모두 미포함'의 BIC 값이 278으로 나타나, 효과 크기가 보통이라는 점이 확인됨.
- 분석 대상인 '외래어 및 외국어'가 포함된 공공용어 중 '로마자 약어'나 '로마자 단어'를 포함하면서 어렵다고 지적되지 않은 사례는 "DMZ"가 유일했음.

전체 공공용어를 대상으로 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단계	변인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1단계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	2.773	.351	62.284	1	.000	16.002
	상수항	.014	.074	.034	1	.853	1.014
2단계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	2.235	.361	38.236	1	.000	9.348
	'합성 또는 구 구조' 여부	-1.645	.295	31.093	1	.000	.193
	상수항	1.520	.287	27.999	1	.000	4.573
3단계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	2.144	.363	34.831	1	.000	8.534
	'합성 또는 구 구조' 여부	-1.664	.296	31.554	1	.000	.189
	'혼종' 여부	-.526	.206	6.486	1	.011	.591
	상수항	1.626	.292	31.039	1	.000	5.081
4단계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	1.466	.433	11.440	1	.001	4.332
	'합성 또는 구 구조' 여부	-1.710	.300	32.586	1	.000	.181
	'혼종' 여부	-.793	.234	11.506	1	.001	.452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유무	.894	.332	7.243	1	.007	2.446
	상수항	1.658	.295	31.546	1	.000	5.249

-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 '합성 또는 구 구조 여부', '혼종 여부',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유무'를 변수로 포함한 모형이 도출됨(χ^2=176.888, df=4, p<.001).
-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유무'는 Exp(B)가 1보다 크므로 승산(odds)에 대해 정적 효과를 가지며, '합성 또는 구 구조 여부', '혼종 여부'는 Exp(B)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승산(odds)에 대해 부적 효과
- 위의 최종 모형에서 각 변수의 효과 크기는 '합성 또는 구 구조 여부(BIC=25.70)', '혼종 여부(BIC=4.69)',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BIC=4.67)',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유무(BIC=0.46)'으로 **나타나 '합성 또는 구 구조 여부'는 효과 크기가 매우 크고, '혼종 여부'와 '외래어 및 외국어 여부'는 효과 크기가 보통이고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유무'는 효과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단, '합성 또는 구 구조'는 어려움 여부를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인 용어 구성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를 영향 요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어렵다고 인식된 공공용어 중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가 포함된 사례

어려운 공공용어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거버넌스 규제샌드박스	거버넌스 샌드박스
디지털포렌식 모멘텀	포렌식 모멘텀
어젠다	어젠다
엠바고	엠바고
워크아웃	워크
특허바우처 팜연수	바우처 팜
팸투어	팸투어
As is - To be	As is - To be
BI	BI
GMO식품	GMO
VC투자	VC

- 진단 기준으로 '사전' 전체가 아니라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특정 사전을 언급한 점에 유의
- 만약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과 같은 사전을 진단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공공용어의 어려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임. 우리말샘은 개방형 사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등재된 공공용어가 많기 때문
- 표준국어대사전은 개방형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어는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공공용어의 인지도를 일정 수준 추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둘 이상의 어종이 결합하여 '혼종'으로 처리된 공공용어 중 어렵다고 지적되지 않은 사례

: "햇살론, 공사알림이, 나라장터, 처음학교로, 내일배움카드제, 신고도움서비스, 스마트복지, 청년동행카드, 혁신모험펀드, 관광레저용지, 사이버안심존, 보건용 마스크, 행정서비스" 등

기초 연구 단계에서 '한자 자체의 난도'가 한자어로 된 공공용어의 어려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연구 결과 **'개별 한자 자체'보다는 '한자어'라는 단어 수준에서 영향 요인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가사사건', '자법인'** : 포함된 한자(家, 事, 件 / 子, 法, 人)의 최고 난도가 1이지만 어렵다고 인식
- **'건강검진기관', '고용위기지역', '금융투자업자'** : 포함된 한자(診 / 雇 / 融)의 최고 난도가 7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인식되지 않았음.
- **'고용안정장려금', '세액공제', '화재취약지역'** : 포함된 한자(傭, 奬 / 控 / 脆)의 최고 난도가 8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인식되지 않았음.

- 예컨대, '화재취약지역'이라는 용어의 난도를 구성 요소 차원에서 예측할 때, '화재', '취약', '지역'이라는 단어 수준에서 진단해야 함. '취약(脆弱)'의 '脆'가 매우 어려운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약'은 그 정도로 어렵다고 인식되지는 않았기 때문임. **단, 한자어의 인지도를 기준으로 한 한자 난도 정보가 개발되어 이를 활용한다면, 한자 자체의 난도도 유효한 영향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 공공 분야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이해도**

일반 국민 1,000명, 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공공용어 140개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등 조사 결과

연번	공공용어	① 이 용어를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② 이 용어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ODA	1.94	1.18	1.83	1.12
2	브라운 백 미팅	1.90	1.12	1.83	1.11
3	ETRI	1.92	1.21	1.84	1.17
4	해커톤	1.96	1.19	1.87	1.12
5	사이니지	1.98	1.20	1.87	1.14
6	PEF	2.02	1.20	1.87	1.13
7	확도	1.96	1.12	1.89	1.08
8	VC 투자	1.99	1.18	1.89	1.14
9	나지	1.99	1.20	1.91	1.18
10	HMR	2.05	1.23	1.94	1.19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 공공 분야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이해도**

일반 국민 1,000명, 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공공용어 140개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등 조사 결과

연번	공공용어	① 이 용어를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② 이 용어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89	개축	3.07	1.37	2.89	1.36
90	해양 플랜트	3.15	1.30	2.91	1.27
91	핀테크	3.28	1.30	2.91	1.29
92	법제	3.20	1.31	2.93	1.34
93	MOU	3.20	1.42	2.93	1.41
94	싱크 탱크	3.23	1.41	2.96	1.43
95	비준	3.22	1.38	2.96	1.39
96	인플루언서	3.22	1.40	2.97	1.43
97	노무비	3.11	1.43	2.98	1.43
98	강소기업	3.17	1.37	3.01	1.39
99	R&D	3.30	1.43	3.08	1.42
100	모듈	3.45	1.25	3.11	1.32
101	크라우드 펀딩	3.46	1.28	3.12	1.34
102	유권 해석	3.39	1.34	3.13	1.34
103	세션	3.42	1.26	3.14	1.28
104	스마트 시티	3.39	1.26	3.19	1.28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 공공 분야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이해도**

일반 국민 1,000명, 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공공용어 140개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등 조사 결과

연번	공공용어	① 이 용어를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② 이 용어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31	과징금	4.01	1.09	3.86	1.12
132	가이드라인	3.99	1.10	3.86	1.16
133	시너지	4.04	1.07	3.89	1.12
134	위탁	4.08	1.04	3.95	1.06
135	컨설팅	4.14	1.02	3.96	1.05
136	융자	4.15	0.99	3.96	1.05
137	모니터링	4.12	1.02	3.99	1.05
138	워크숍	4.19	0.98	4.02	1.03
139	연구 개발	4.16	1.04	4.05	1.05
140	납부	4.19	1.02	4.14	1.04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 공공 분야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이해도

집단 간 이해도 차이 : '연령'

순위	용어	연령	이해도
1	민자	20대	2.75
		30대	3.12
		40대	3.44
		50대 이상	3.80
2	하도급	20대	2.77
		30대	3.21
		40대	3.63
		50대 이상	3.80
3	이첩	20대	2.25
		30대	2.47
		40대	2.73
		50대 이상	3.23
4	유권 해석	20대	2.67
		30대	2.70
		40대	3.23
		50대 이상	3.63
5	관보	20대	2.42
		30대	2.30
		40대	2.74
		50대 이상	3.24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 공공 분야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이해도

집단 간 이해도 차이 : '학력'

순위	용어	학력	이해도	차이
1	R&D	고졸 이하	2.54	0.91
		대졸 이상	3.45	
2	B2B	고졸 이하	2.26	0.86
		대졸 이상	3.12	
3	산학 협력	고졸 이하	2.84	0.81
		대졸 이상	3.65	
4	엠바고	고졸 이하	2.37	0.79
		대졸 이상	3.16	
5	MOU	고졸 이하	2.47	0.77
		대졸 이상	3.25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 공공 분야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이해도

집단 간 이해도 차이 : '직업(군)'

순위	용어	직업군	이해도
1	R&D	사무직	3.50
		생산직	2.91
		기타종사자	2.42
2	MOU	사무직	3.32
		생산직	2.80
		기타종사자	2.28
3	B2B	사무직	3.19
		생산직	2.54
		기타종사자	2.17
4	시방서	사무직	3.07
		생산직	2.56
		기타종사자	2.08
5	엠바고	사무직	3.17
		생산직	2.79
		기타종사자	2.20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 공공 분야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이해도

집단 간 이해도 차이: '지역 규모'

순위	용어	지역 규모	이해도
1	R&D	대도시	3.17
		중소도시	3.11
		군/읍/면	2.55
2	핀테크	대도시	3.00
		중소도시	2.94
		군/읍/면	2.40
3	크라우드 펀딩	대도시	3.26
		중소도시	3.07
		군/읍/면	2.73
4	플래그십	대도시	2.77
		중소도시	2.56
		군/읍/면	2.25
5	하도급	대도시	3.50
		중소도시	3.43
		군/읍/면	3.02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 공공 분야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이해도

집단 간 이해도 차이: '일반 국민과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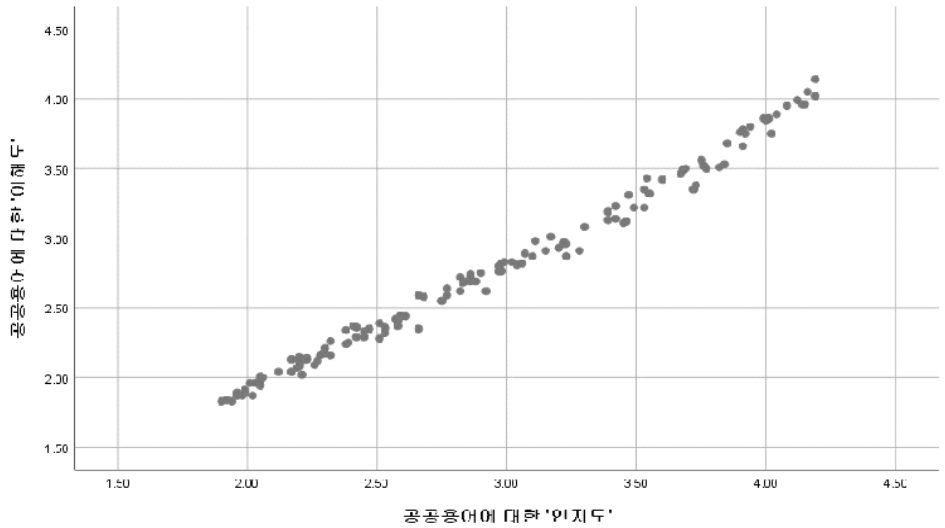
순위	용어	공무원/일반인	이해도	차이
1	예규	공무원	3.59	0.87
		일반인	2.72	
2	리플릿	공무원	3.38	0.76
		일반인	2.62	
3	이첩	공무원	3.48	0.74
		일반인	2.74	
4	MOU	공무원	3.62	0.69
		일반인	2.93	
5	징구	공무원	2.82	0.68
		일반인	2.14	

03 공공 용어의 난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2) 공공 분야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이해도

인지도와 이해도의 관계

'인지도'와 '이해도'의 관계 산점도



공공용어의 '이해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Ⅰ)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t
	B	표준 오차		
(상수)	.01	.03		.38
인지도	.94	.01	.995	111.95***

F=12533.65***, R^2(adj. R^2)=.99(.99), D-W=1.206

*p<.05, **p<.01, ***p<.001

- 공공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유의수준 .001에서 공공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F=12533.65, p<.001).
- 공공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공공용어에 대한 이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β=.995, p<.001).
- 위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공용어 이해도의 총변화량의 약 99%가 공공용어에 대한 인지도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임. 즉, "해당 공공용어를 얼마나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가 "해당 공공용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를 약 99% 설명하고 있음.
- 공공용어의 난도에 인지도가 끼치는 영향력이 이처럼 막대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고려할 경우 표기 방식, 어종, 결합 방식, 사전 등재 여부 등 공공용어 자체 요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공공용어 각각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해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도 이외에 다른 기준을 활용하여 공공용어의 난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외래어 및 외국어 용어의 경우

- 한자어 용어의 경우 '확도', '성료', '산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자어로만 된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 용어를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공공용어의 '이해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Ⅲ) [한자어 용어 제외]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B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β)	t	VIF
(상수)	3.44	.09		38.80***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포함 여부 (포함=1, 미포함=0)	-.96	.10	-.68	-9.34***	1.04
로마자 포함 여부 (포함=1, 미포함=0)	-.30	.11	-.21	-2.86**	1.04
F=54.42***, R^2(adj. R^2)=.55(.54), D-W=1.06					

*p<.05, **p<.01, ***p<.001

-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포함 여부'와 '로마자 포함 여부'를 독립 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도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5%(수정된 R^2은 약 54%)
-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포함 여부'와 '로마자 포함 여부'는 공공용어의 이해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공공용어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미등재된 요소나 로마자가 포함될 경우 '공공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지고 '공공용어 이해의 어려움'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러한 결과는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포함 여부', '로마자 포함 여부'가 특히 한자어로만 된 경우를 제외한 공공용어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데 유효한 지표임을 의미

한자어 용어의 경우

- '한자어'인 공공용어의 난도를 측정할 때에는 '외래어 및 외국어'의 난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포함 여부'와 '로마자 포함 여부'를 진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로마자 표기의 경우 외래어 및 외국어에만 해당하므로 한자어 용어와는 관련이 없고, 한자어의 경우 난도가 높은 어휘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포함 여부'는 진단 기준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임.

- **'한자어'인 공공용어의 어려움을 진단하는 방법**

① 공공용어를 구성하는 **어휘의 난도 정보 활용**. 그러나 현 시점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어휘 난도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 연구자 또는 사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어휘 난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공공용어의 어려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국어 어휘의 난도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② 공공용어의 이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인지도로 나타났으므로, 한자어의 **인지도를 간접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다양한 분야의 글에서 많이 나타나는 한자어는 인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국립국어원, 2005)>를 활용하여, 각 한자어 용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빈도로 활용하였음.

- 더하여 구성 어휘가 2018년도 45개 중앙행정기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몇 개 기관에서 사용되었는지를 '구성 어휘의 분포'로 명명하고, 이를 '구성 어휘의 빈도'와 함께 독립 변수로 투입.

공공용어의 '이해도'에 대한 구성 어휘 빈도와 분포의 영향력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t	VIF
	B	표준오차			
(상수)	2.17	.11		19.50***	
구성 어휘의 분포 (2018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기준)	.03	.01	.60	5.35***	1.60
구성 어휘의 빈도 (빈도 10 이상=1, 10 미만=0)	.38	.16	.27	2.45*	1.60
F=40.24***, R^2(adj. R^2)=.63(.61), D-W=1.44					

*p<.05, **p<.01, ***p<.001

- '구성 어휘의 분포'와 '구성 어휘의 빈도'를 독립 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도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63%(수정된 R^2은 약 61%)

04 말다듬기 대상,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공공용어의 인지도는 공공용어의 난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침.

→ 공공용어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의 상관 계수는 0.9를 넘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인지도를 독립 변수로 포함한 회귀모형은 이해도 분산의 약 9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사람들이 해당 공공용어를 어느 정도 보거나 들어 보았는지를 알면 그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대단히 정확히 예상할 수 있음.

- 인지도는 직접 측정해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현실적 어려움

→ 차후 **말뭉치에서의 사용 빈도, 사용 분야 등**을 예측 변수로 삼아 공공용어의 **인지도를 추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04 말다듬기 대상,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 **공공용어의 난도는 어종을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음.**

예

'외래어 및 외국어'로 된 공공용어의 경우 진단 기준

: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포함 여부> <로마자 포함 여부>

→ 이를 독립 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은 이해도 분산의 약 55%를 설명.

→ 이를 포함한 공공용어는 어렵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짐.

- 본 연구에서 도출한 회귀 모형은 이해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를 난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5점 만점인 이해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100점에서 해당 값을 뺀 나머지 값을 난도로 간주하고 만든 식

04 말다듬기 대상,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외래어 및 외국어'로 된 공공용어의 난도

$$= 100 - \{ 25 \times (-0.96 \times D - 0.30 \times R + 3.44) - 25 \}$$

(R^2=.55)

D =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요소 포함 여부(포함=1, 미포함=0)

R = 로마자 포함 여부(포함=1, 미포함=0)

- [유형 1] 100-{25×(-0.96×1 – 0.30×1 + 3.44)-25} = 70.5점
- [유형 2] 100-{25×(-0.96×1 – 0.30×0 + 3.44)-25} = 63점 어려움

50점 기준

- [유형 3] 100-{25×(-0.96×0 – 0.30×1 + 3.44)-25} = 46.5점 쉬움
- [유형 4] 100-{25×(-0.96×0 – 0.30×0 + 3.44)-25} = 39점

- [유형 3]의 경우 로마자를 포함하면서도 난도가 높게 나오지 않은 것 : 'R&D', 'GDP'와 같이 해당 용어가 오래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므로 새로운 공공용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04 말다듬기 대상,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한자어 공공용어의 난도

$$= 100 - \{ 25 \times (0.03 \times D + 0.38 \times F + 2.17) - 25 \}$$

(R^2=.63)

D = 공공용어 구성 어휘의 분포 (2018 중앙행정기관 보도 자료 기준 사용 기관 수)

F = 공공용어 구성 어휘의 빈도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국립국어원, 2005)>기준, **빈도 10 이상=1, 빈도 10 미만=0**)

- 나지(裸地): 100- { 25 × (0.03 × 2 + 0.38 × 0 + 2.17) - 25} = 69.25 어려움
- 연구 개발 : 100- { 25 × (0.03 × 42 + 0.38 × 1 + 2.17) - 25} = 29.75 쉬움

50점 기준

04 말다듬기 대상,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 이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용어의 **난도 산출 식은 잠정적인 것**
- 한국어 어휘의 난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면 현재와는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 어휘의 분포와 빈도를 측정할 수 있음.
- 공공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난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국민들이 읽을 **공문서를 작성할 때 보다 쉬운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용이**할 것임.
  따라서, 난도 측면에서 어떤 용어를 다듬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임.

MEMO✎

MEMO✎

MEMO✎

MEMO✎

MEMO✎

2019년 국어 정책 학술 대회

국어 순화의 방향과 방법

발 행 인 소강춘

기획·편집 정호성·서민경

발 행 일 2019. 12. 5.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http://www.korean.go.kr

※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간행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